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코스피(1일) **2804.31** (+6.49P)
코스닥 **847.15** (+6.71P)
환율(원·달러, 15시30분) **1379.30** (+2.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210%** (+0.028%p)

제341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글로벌 항공엔진 심장’ 한화에어로 코네티컷 공장 2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 신설 6

주류 된 비주류 문화 남녀노소 ‘웹툰 홀릭’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 ①

10명 중 6명 “1년내 본적 있다”
20대 여성 비중 84% 가장 높아
50대 ‘최신 회차 즉시 감상’ 최다

높은 접근성·콘텐츠 흥미도 등
출범 20년 만에 새세대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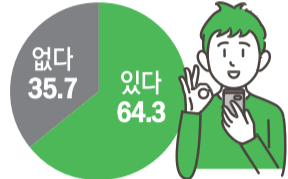
웹툰 중주국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웹툰을 감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102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웹툰이 이제는 전 세대가 즐기는 주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웹툰이 단순한 스낵 컬처가 아니라 독자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기꺼이 향유하는 대중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3·4면
본지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행태를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최근 1년 내 웹툰을 감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7%만이 웹툰을 감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인 중 1년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웹툰이 대중에게 접근성이 높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 1년 내 웹툰을 감상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웹툰 산업이 출범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1020세대 전유물로 여겨졌던 웹툰은 전 연령대에 걸쳐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는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이 드라마·영화 등으로 재탄생해 시장의 저변을 넓히면서 가능해졌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웹툰을 감상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활용

1년 내 웹툰을 감상한 적이 있는가?
(단위: %)



※ 이투데이 의뢰(6월 11~18일)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 대상
※ 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
※ 웹툰 이용 행태, 모바일 설문조사 지원: 오픈서베이

도가 높은 20대와 30대의 경우 웹툰을 감상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9.4%, 75.3%를 차지했다. 40대는 65.2%로 전체 평균(64.3%)을 웃돌았고, 50대는 44.6%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20대 여성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여성이 35.8%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20대(75.2%), 30대(78.4%), 40대(70.8%), 50대(53.3%) 순으로 높았다. 50대를 제외하고는 나이와 관계없이 웹툰을 감상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 이용자들은 특정 시간이 아닌 이동 중이나 수면 전후 등 다양한 시간에 틈틈이 웹툰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감상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휴식 시간(37.3%)’을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잠들기 전(32.3%) △통근·통학 등 이동 시간(20.2%) △최신 회차가 나오자마자(4.7%) △식사 중(3.9%) △기상 직후(1.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0대의 웹툰 감상 패턴이다. 이들은 웹툰을 보기 위해 가장 부지런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50대는 전 연령 가운데 최신 회차가 나오자마자 웹툰을 감상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로 가장 높았다. 기상 직후 웹툰을 감상하는 비중도 50대(2.3%)가 20대(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0대 중 54.1%의 이용자는 휴식 시간에 웹툰을 감상했는데 전체 평균(37.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타 연령층에 비해 웹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나리 기자 nari34@
임유진 기자 newjean@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방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해외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월 반도체 수출 134억달러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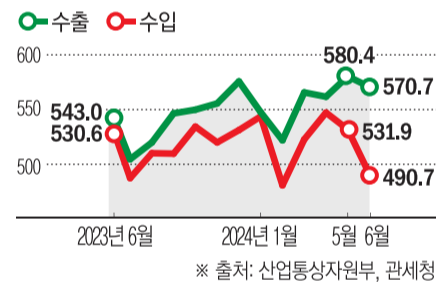
총수출 5.1% ↑ ... 9개월째 플러스
상반기 무역흑자는 6년 만에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며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570억7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 등 정보기술(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최대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반도체 수

수출입(단위: 억달러, 신고수리 기준)



출이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85%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41억 달러로 9% 증가했다.

한국의 두 번째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0.4% 감소한 62억 달러였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속에서 6월 이차전지 수출은 20.5% 감소했다. 또 글로벌 연합 부진으로 철강 수출도 24.3% 줄었다. 지역별로는 6월 대(對)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200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역대 6월 최고치를 기록, 미국이 중국을 제

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대 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작년보다 1.8% 증가한 107억 달러를 나타냈다.

6월 수입액은 490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의 경우 가스(-2.5%)·석탄(-25.7%)은 줄었지만, 원유수입액이 8.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4% 소폭 증가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자동차(-39.6%), 전자기(-6.7%) 등 소비재 중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6월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였다. 2022년에 이어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 달러였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나타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원에 한정해 허용해 왔던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다른 일반대학으로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은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국내 우수대학, 해외 이공계 연구유학생 유치 ‘물꼬’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말한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

과학기술원 한정 비자, 일반대 확대
석사 연구원 ‘경력 3년 요건’ 면제

합대학원대학교(U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

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우수국의 석사 연구인재에 대해서도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구원(E-3) 비자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기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 없이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의 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아현 기자 cahyun@

세계 항공엔진 심장부 위치... 하늘 넘어 우주산업 확장

르포 美법인 코네티컷 공장

2019년 EDAC 인수 HAU 출범 4개 공장 통해 글로벌 입지 강화 GE 등 100여개사에 부품 공급 혁신·성장으로 항공우주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HAU)의 체셔 공장 전경(왼쪽 사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HAU 체셔 사업장에서 직원이 항공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150여km 떨어진 코네티컷주로 향하는 도로. 시골 풍경이 두 시간가량 이어졌을 때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미국법인(HAU) 체셔(Cheshire) 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2만6454㎡ 규모로 들어선 이 공장은 미국 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코네티컷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 쇠퇴와 함께 많은 기업이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닦혔다. 그러나 프랫앤드워트니(P&W)와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대형 항공엔진 제조업체와 주 정부의 지원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9월 현

지 항공엔진부품 업체인 이닥(EDAC)을 인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HAU)'을 출범시켰다. 이 인수는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네이트 미나미(Nate Minami) HAU 사업장장은 "우리는 항공기 엔진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한다"며 "현재 P&W, GE, 프랑스 사프란(SAFRAN),

일본 미쓰비시를 비롯해 10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HAU는 코네티컷에서 뉴잉턴(Newington), 체셔, 글래스턴베리(Glastonbury), 이스트 윈저(East Windsor) 등 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뉴잉턴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긍심이 느껴졌다. 이 공장은 주요 고객사에 항공

엔진의 회전체 부품을 납품하며 HAU의 중추적인 허브(Hub)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 생산은 40대 중반에서 환갑을 넘긴 숙련공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는 뉴잉턴 사업장을 핵심 생산 기지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HAU는 뉴잉턴 사업장에 추가로 8개의 장비를 투자해 총 23개의 밀링 및 선반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2017년부터

3000만 달러(약 390억 원)를 투자했으며, 민수와 군수 부문에 각각 6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미나미 HAU 사업장장은 "HAU는 각 부품이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하며,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네티컷(미국)=이동욱 기자 toto@

한화, 美코네티컷서 '퓨처 엔진 데이'... "8년 내 연매출 2.9兆"

사업 현황·코네티컷 항공 엘리 성공 사례 분석 HAU 지난해 매출 최대... 독자엔진 개발 박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엔진부품 사업에서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 9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5년 동안 엔진을 생산해온 역량으로 한국과 미국, 베트남 등 글로벌 생산기지에서의 사업을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HAU)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체셔사업장에서 현지 기업, 주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항공엔진사업의 현황과 미래, '코네티컷 항공 엘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퓨처 엔진 데이' 행사를 개

최했다.

HAU 설립 5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네이트 미나미(Nate Minami) HAU 사업장장, 폴라보이(Paul Lavoie) 코네티컷 주정부 제조업 책임자(CMO), 제시카 테일러(Jessica Taylor) 코네티컷 항공부품협회 대표(Executive Director) 등이 참석했다.

코네티컷은 프랫&워트니(P&W), 제너럴일렉트릭(GE) 등 항공엔진 제조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부품 공급사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한 항공 엘리(Aerospace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퓨처 엔진 데이'에서 네이트 미나미 HAU 사업장장이 사업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lley)로 글로벌 항공엔진산업의 중심지다. '소재-부품-엔진'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약 100년 동안 성장해왔다.

미나미 HAU 사업장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5년간 HAU가 성공적으로 코네티컷의 항공엔진 생태계에 정착한 요인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선도 기술 확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채용 등을 꼽았다. HAU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25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약 20% 성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HAU를 거점

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창원사업장은 향후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항공 엘리'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 "전투기에서 민항기와 선박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엔진 분야는 '미래 먹거리'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며 "엔진 생산 역량과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부품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독자 엔진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미국)=이동욱 기자 toto@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저명업자 대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중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중소기업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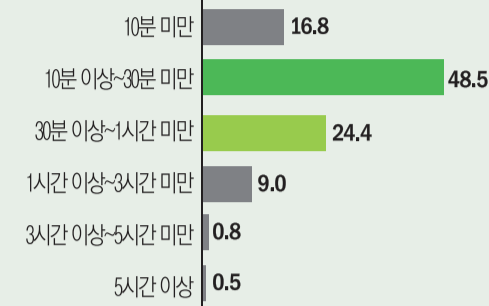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국민 절반이 '쿠키 굶는다' 85%가 소액과금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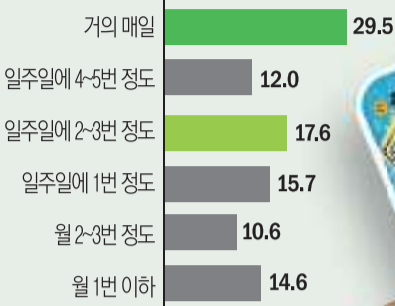
<웹툰 이용 전자화폐 충전>

<월 1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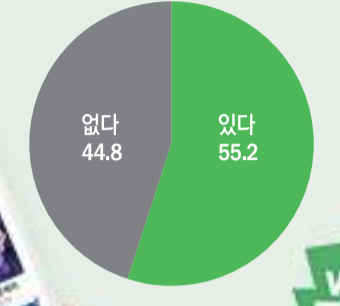
웹툰 플랫폼 한 번 접속 시 웹툰 감상 시간 (단위: %)



웹툰 감상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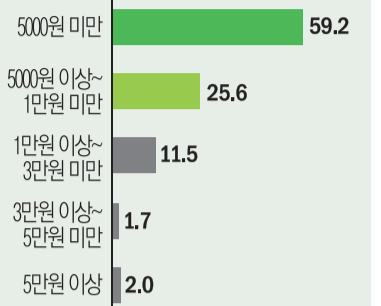
유료 결제를 해본 적 있는가? (단위: %)



연령별 유료 결제 비율 (단위: %)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는가? (단위: %)



※ 이투데이 의뢰(6월 11~18일)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 대상 ※ 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

※ 웹툰 이용 형태, 모바일 설문조사 자료: 오픈서베이

“이 집 쿠키맛집이네” “쿠키 굶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과식하고 싶다.”

웹툰을 감상하는 사람이라면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는 의미다.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다르게 웹툰의 경우 무료보기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을 유료로 감상하는 이용자가 국민 절반을 차지했다.

본지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형태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2%가 웹툰 감상을 위해 유료 결제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67.5%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61.3%, 40대가 50%, 50대가 39.1% 순이다.

남성(67.1%)과 여성(67.9%)의 편차가 미미한 20대와는 다르게 30~40·50세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유료 결제 경험의 편차가 컸다. 30대는 웹툰을 유료로 감상했다고 응답한 남성이 65.9%로 여성(55.8%)보다 10.1%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는 웹툰을 유료로 감상했다는 여성이 58.2%, 45%

로 남성보다 각각 14.9%p, 10%p씩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2%는 웹툰을 감상하기 위해 월평균 5000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5000원 이상~1만 원 미만이 25.6%,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11.5%,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7%, 5만원 이상이 2%를 차지했다. 무료 감상이 가능한 웹툰을 유료로 감상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웹툰 창작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웹툰은 과거에 무료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유료 결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그 결과 유료 결제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으면서 웹툰 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웹툰 사업자인 네이버웹툰은 다음 에피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유료 모델을 적용했다. 결제를 위해서는 '쿠키'가 필요하다. 쿠키는 네이버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등을 결제할 때 쓰는 사이버머니로 쿠키 1개당 100원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전자화폐를 충전할 때 '쿠키를 굶는다'라고 표현한다. 이때문에 네

응답자 절반 이상 “유료결제 경험” 연령대별로 20대·30대 60% 이상 40대는 50%... 50대도 39% 달해

한달 지출액 “5000원 미만”이 과반 “정당한 비용 내고 보자” 인식 확산

이버웹툰 댓글에는 ‘오늘도 쿠키 잘 구웠다. ‘쿠키가 아깝지 않네’, ‘이 집 쿠키맛집이네’ 등의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도 유료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캐시를 충전한 후 작품별로 대여권과 소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웹툰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200원에 해당하는 쿠키 2개, 대여권 1장이 필요하다.

웹툰 한 편을 보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의 단가가 낮은 것도 웹툰 감상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4.8%가 월평균 1만 원 미만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웹툰시장은 고액과금 이용자보다는 소액 과금 이용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50대의 경우 월평균 3만 원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는 전무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웹툰 삼매경’... 10명 중 3명 “매일 본다”

‘일주일에 1번 이상’ 75% 차지 49% “평균 감상시간 10~30분” “5시간 이상 본다” 응답자도

웹툰 이용자들은 웹툰을 ‘짧게·수시로’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한 번 웹툰을 보는 데 1시간 미만을 할애했다.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매일 웹툰을 감상하고 있으며, 이중 3명은 ‘거의 매일’ 웹툰을 보고 있다.

본지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형태를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한 결과 전체 웹툰 이용자 가운데 웹툰 플랫폼 접속 시, 평균 감상 시간이 ‘10분 이상~3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 24.4% △10분 미만 16.8%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9%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0.8% △5시간 이상이 0.5%를 차지했다. 1시간 미만 감상 비율이 89.7%인 것은 웹툰 이용자들이 웹툰을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웹툰 감상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거의 매일 본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17.6% △일주일에 1번 정도 15.7% △월 1번 이하 14.6% △일주일에 4~5번 정도 12% △월 2~3번 정도가 10.6%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웹툰을 감상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웹툰을 감상하는 인원은 20대와 30대가 각각 41.6%, 31.5%를 차지했다. 40대는 26.1%를, 50대는 16.5%를 기록했다.

거의 매일 웹툰을 감상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데에는 요일별로 연재하는 웹툰의 시스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마다 연재되는 웹툰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편의 작품을 모두 감상하기 위해 거의 매일 웹툰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웹툰을 감상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자주 보기 때문에 웹툰 감상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웹툰 이용 시간과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10분 이상~30분 미만, 거의 매일 웹툰을 감상하는 이용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900분 가량을 웹툰 감상에 쏟는 셈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소화에 속진속결 베나치오

빠르고 속 편한 소화제 베나치오

원고심의회 2024-1718-007600

웹툰 즐기는 4050, 2030보다 더 ‘웹툰=책’으로 인식

설문 응답자 45% “문화 콘텐츠” 웹툰 이용자는 “책·영화와 같이” 연령대 낮고 비이용자일수록 스낵컬처·B급 하위문화로 여겨

국민 10명 중 6명이 웹툰을 감상하는 시대에, 국민들이 웹툰을 스낵컬처·하위문화·B급 콘텐츠보다 서적·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더 웹툰을 책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소비자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행태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웹툰은 어떤 쪽에 가깝나요?’라는 질문에 서적·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는 비율은 44.8%로 스낵컬처·하위문화·B급 콘텐츠로 인식하는 비율 21.4%의 배가 넘었다. 둘의 중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3.8%였다.

웹툰 감상 여부가 웹툰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웹툰 소비자는 웹툰을 서적·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웹툰을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낵컬처·하위문화·B급 콘텐츠로 여기는 추세가 뚜렷했다. 웹툰이 스낵컬처·하위문화·B급 콘텐츠에 가까울수록 1점, 서적·영화 등에 가까울수록 5점을 의미하는 해당 설문에서 1점을 고른 인원 중 최근 1년 내 웹툰을 감상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체의 1.7%인 반면 최근 1년 내 웹툰을 본적 없는 소비자들은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4점을 선택한 인원 중 최근 1년 내 웹툰을 감상한 적 없는 경우는 28.6%, 웹툰을 감상하는 소비자들은 38.9%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웹툰을 서적과 동일하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B급 스낵컬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웹툰을 서적·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는 4점과 5점을 고른 비율과 스낵컬처·하위문화·B급 콘텐츠로 인식하는 1,2점을 고른 비율은 각각 20대는 37.3%, 35.4%, 30대는 39.5%, 22%, 40대는 51.9%, 16.3%, 50대는 47.7%, 15.8%였다. 4.5점을 고른 비율과 1.2점을 고른 비율의 차이는 20대는 1.9%포인트(p), 30대는 17.5%p, 40대는 35.6%p, 50대는 31.9%p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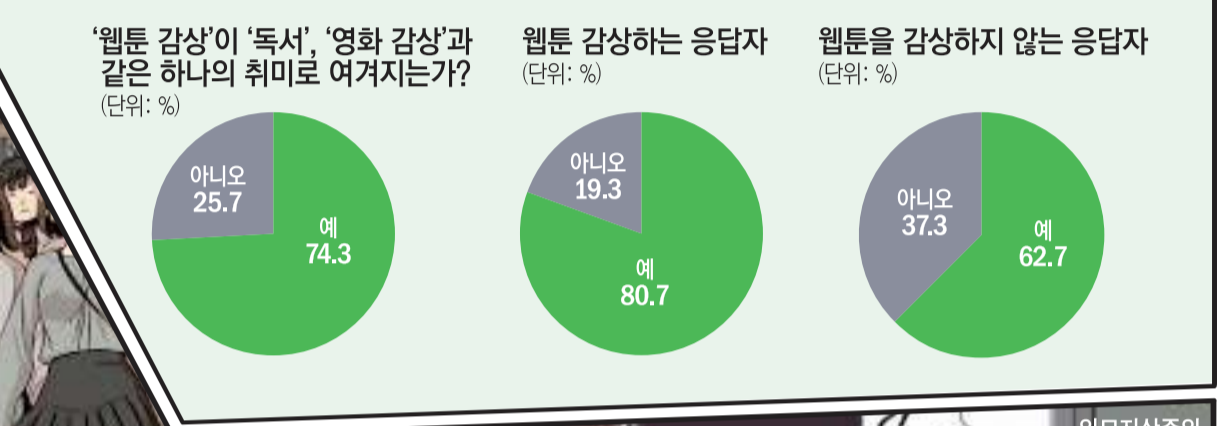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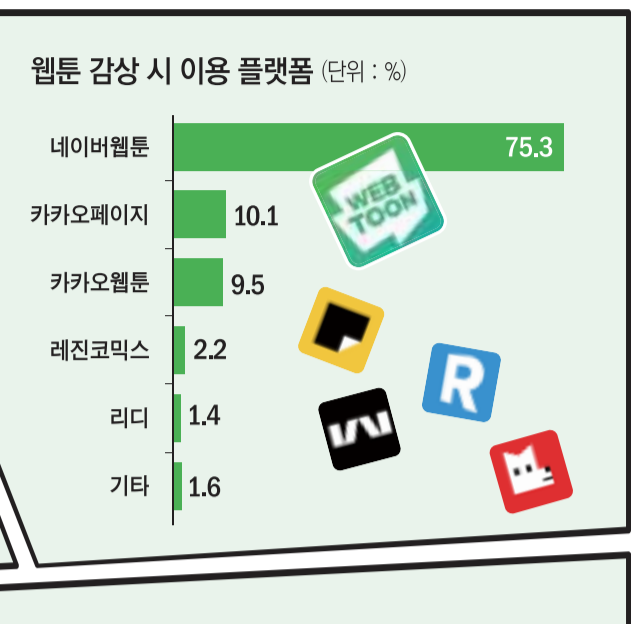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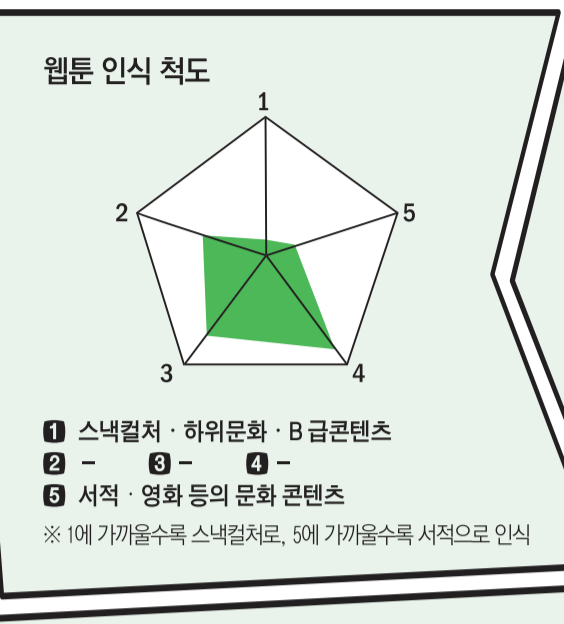
중이 만화에서 발전한 웹툰은 ‘덕후’(어떤 분야에 몰두해 있는 이)들이 본다는 인식이 강해 과거에는 주류 문화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플랫폼과 지식재산(IP)의 2차 활용 등이 본격화하며 웹툰은 점차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해 웹툰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웹툰 원작 작품들이 인기를 얻으며 웹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 공개된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14편 중 절반은 웹툰 원작 IP를 활용한 작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재미있게 봤다면 ‘스위트홈’를 비롯해 ‘마스크걸’, ‘이두나!’, ‘택배기사’, ‘사냥개들’ 등이 해당한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웹툰 이용 행태조사

※ 이투데이 의뢰 : 6월 11일~18일,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 대상
 ※ 신뢰수준 80% · 표본오차 ±2.03%p
 ※ 웹툰 이용 행태, 모바일 설문조사 지원 : 오픈서베이



화산귀환



74% “제 취미는 웹툰 감상”... 음악·독서처럼 여겨

대중적 취미활동으로 자리매김 웹툰 기반 드라마·게임 쏟아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웹툰을 감상하는 시대다. 이제는 웹툰 감상을 음악 감상이나 독서와 같이 취미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행태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웹툰 감상을 독서나 영화 감상

과 같은 취미로 여긴다고 답했다. 웹툰이 주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감상처럼 대중적인 취미활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2차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웹툰은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웹툰 팬들은 웹툰을 원작으로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굿즈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경이로운소문, 내남편과 결혼해줘, 마스크걸, 무빙, 미생, 스위트홈, 유미의 세

포들 등은 모두 웹툰 IP 기반의 드라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원작인 웹툰이 역주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명 웹툰의 팬덤을 활용해 드라마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웹툰을 기반으로 재탄생한 드라마를 보고 웹툰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웹툰 작품을 한번에 정주행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다.

웹툰 기반의 게임들도 눈에 띄게 출시되고 있다.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웹툰 기반 게임의 경우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감상하기 위해 웹툰을 감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웹툰 기반 게임으

로는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등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웹툰 감상 여부에 따라 웹툰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소비자는 웹툰 감상을 하나의 취미로 여기는 비중이 80.7%인 데 비해, 웹툰을 소비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62.7%만이 취미로 여겼다.

웹툰을 감상하는 응답자와 감상하지 않는 응답자 모두 대체적으로 웹툰을 취미로 받아들였지만 웹툰을 소비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웹툰을 감상하는 응답자가 웹툰을 취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리 기자 nari34@

10명 중 7.5명 ‘네이버웹툰’으로 웹툰 본다

웹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웹툰을 감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툰 이용 행태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웹툰 감상 시 이용하는 플랫폼을 묻는 질문에 ‘네이버웹툰’이라고 답한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지가 10.1%, 카카오웹툰이 9.5%, 레진코믹스가 2.2%, 리디가 1.4%, 기타가 1.6%로 집계됐다. 기타로는 미스터블루, 탐툰, 뉴토끼, 네이버 시리즈, 올툰, 봄툰, 무툰 등이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네이버웹툰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91%, 30대는 79.8%, 40대는 68.7%, 50대는 58.6%가 네이버웹툰을 통해 웹툰을 즐기고 있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카카오웹툰을 즐겨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는 18.8%, 40대는 11.4%, 30대는 7.7%, 20대는 1.8%가 카카오웹툰으로 웹툰을 감상 중이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장르가 유명한 레진코믹스의 경우도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50대의 3.8%, 40대의 2.8%, 30대의 1.2%, 20대의 1.2%가 레진코믹스 웹툰을 보고 있다. 전자책(ebook)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리디는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모바일 이용률이 높은 2030세대가 전자책에 더욱 친숙하기 때문에 리디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였다. 30대 2.4%, 20대 1.2%, 40대 1.1%, 50대 0.8% 순으로 조사됐다.

웹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툰 플랫폼을 3위까지 선택했을 때는 위와 같은 이용 패턴이 더욱 뚜렷해졌다. 네이버웹툰을 이용하는 비율은 20대가 9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30대가 92.9%, 40대가 88.1%, 50대가 81.2%였다.

카카오웹툰은 40대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50대(45.9%), 30대(39.3%), 20대(28.9%)로 1순위 선택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리디 역시 1순위 플랫폼 선택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리디 플랫폼을 가장 즐기는 세대는 30대(7.1%)였다. 그 뒤는 20대(6.6%), 40대(3.4%), 50대(1.5%) 순이었다.

반면 레진코믹스는 2030세대가 주로 보는 웹툰 플랫폼에 더해 추가로 이용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웹툰 플랫폼을 1위에서 3위까지 골랐을 경우, 레진코믹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20대였다. 20대의 13.3%, 30대의 14.9%, 40대의 9.1%, 50대의 10.5%가 레진코믹스 웹툰을 감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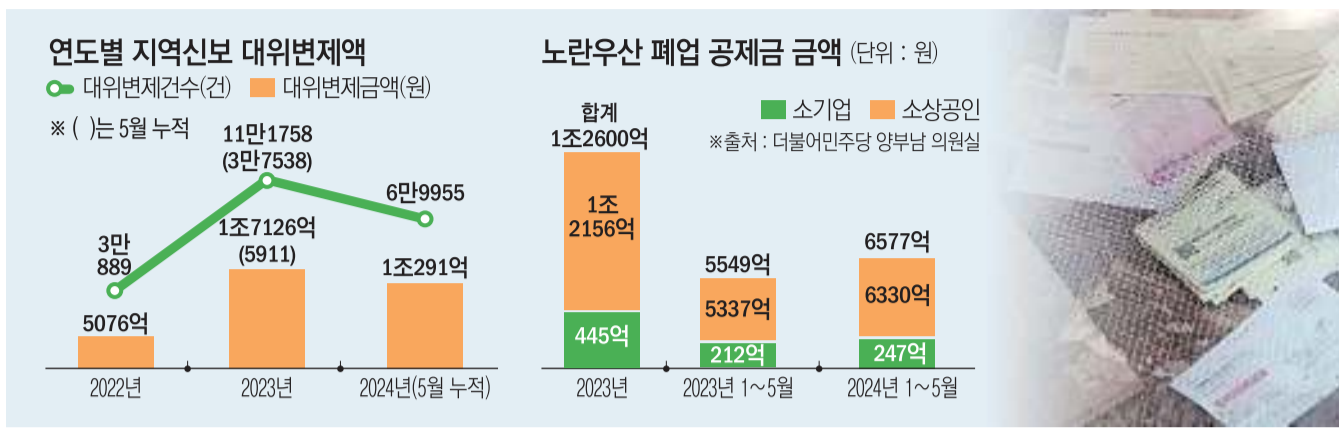
임유진 기자 newjean@

빛 못갚는 소상공인 심폐소생에도... 댐방식 처방 우려

3고에 대위변제금 1조원 넘어
노란우산 공제금 1년새 20% ↑
정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
저리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전문가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의 줄 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이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연체율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부실 파열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양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3%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부실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꺼내들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 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

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 새 발생한 사안이나 아니다"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폐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준 차주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문선영 기자 moon@

반등에 힘 싣는 삼성전자 DS 경력직 또 대거 채용

전 사업부 직무 '800여개' 모집
2월에도 대규모 채용... 인재를 사활
5일 2분기 실적 발표... 8.2조 예상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하반기 대규모 경력 채용에 나선다.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 만큼 유수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반등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DS부문은 최근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9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CTO △제조&기술담당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TSP총괄 △어드밴스드패키징(AVP) 사업팀 △혁신센터 △CSS사업팀 △종합기술연구원(SAIT) 등 전 사업부에서 모집 직무만 800여 개에 달한다.

메모리 사업의 경우 D램, 낸드를 포함해 최근 인공지능(AI)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컴퓨터 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전 솔루션에 관해 개발·설계·검증·품질 등 직무를 폭 넓게 뽑는다. 선행 연구 개발 과제 전략 수립 및 관리, 미래 유망 기술 발굴 및 확보 전략 수립 등 차세대 사업에 관해 준비하고, 연구하는 직무도 뽑는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수율 분석, 선단 제품 공정 개발 등에서 뽑고 AVP 사업에서는 패키지 수율 향상, 2.5D 패키지 제품 개발 등에서 경력 인재를 모집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직무 전반에 걸쳐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월에도 DS부문을 포함해 TV, 가전, 모바일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등 전 분야에서 대규모로 경력직을 채용했다. 그간 사업부별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뽑아왔던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직군에서 동시에 채용에 나선 건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주력 사업이었던 반도체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해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컨센서스)은 8조 2288억 원이다. 전년 동기 6685억 원과 비교하면 1131% 상승한 수치다.

DS부문에서만 많게는 5조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분기에는 DS 부문이 1조910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자 행진을 끊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일 올해 첫 경영 행보로 삼성명장 15명과 간담회를 하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시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건설기초소재 분야 선도기업 삼표

삼표그룹 사업분야

- 건설기초소재
- 시멘트 / 레미콘 / 골재
- 신사업
- 부동산 개발
- 철도
- IT / 자동화시스템 / 운송 / 혁역
- 물류
- System Integration
- 개도용품 / PSTS / 개도공사
- 리사이클링
- 환경자율 / 칠스크림
- R&D
- 기술연구수
행도 / 콘크리트
- 본체 / 물탱 / PC / PHC

SAMPYO Industry

SAMPYO Industry SAMPYO Cement SAMPYO P&C SAMPYO Railway SP NATURE SP S&A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 ‘巨野 소통’ 정무장관 신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정부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실제 성사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해 정부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우선 각 부처 간 기능을 개편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

인구부, 교육 제치고 부처 No.2 타부처 인구정책 예산 배분 맡아 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정부조직 개편 주요 내용

- 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
- **인구 전략 컨트롤 타워**: 각 부처 인구 정책 평가 및 예산 사전 배분
- **부처 서열 2위**: ①기획재정부 ②인구전략기획부 ③교육부
- ② **정무장관 신설**
- **국회와 소통 강화**: 민생 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 ③ **여가가족부 폐지 백지화**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옮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에 신설한다. 이와 함께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를 두고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문화·인식 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과거 ‘무임소장관’·‘특임장관’과 같은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

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처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마존, 인텔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에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거대언어모델(LLM), 산업용 AI 등 구체적인 AI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1일 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난주 미국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에서 앤디 재시 CEO와 만나 AI와 반도체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시 CEO는 AI, 클라우드 전문가로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거쳐 2021년부터 아마존 CEO로 재직하고 있다.

최태원, 4월부터 빅테크 ‘스킨십’ HBM·D램 반도체 사업 확대 모색

아마존은 최근 각각 머신러닝(ML)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자체 AI 반도체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를 개발하는 등 반도체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AI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 반도체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개발한 반도체로 고성능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양산과 고객사 납품을 시작하며 AI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새너제이의 인텔 본사에서 팻 겔싱어 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 제조 협력을 확

빅테크 리더 줄줄이 만난 최태원 아마존·인텔과도 AI·반도체 협력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이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서 앤디 재시 CEO와 인공지능·반도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과의 협업으로 2022년 12월 1초당 8기가비트(Gb) 이상의 속도를 구현한 서버용 D램 ‘DDR5 MCR DIM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10나노급 4세대(1a

) DDR5 서버용 D램과 인텔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인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4th Gen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s)’ 간 호환성 검증에 세계 최초로 인증받았다. 이 결과를 백서(White Paper)로 공개하는 등

양사 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 최근에는 AI 가속기인 ‘가우디 3’를 출시하는 등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나서는 등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출국한 최 회장은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등 현지 정보 기술(IT) 업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났다.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 전 영역의 업계 리더들과 대화하며, SK의 AI 경쟁력 강화 방안, ‘사람’을 향하는 SK의 AI 사업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최 회장은 4월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TSMC, 오픈AI, MS, 아마존, 인텔 등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리더들을

SK, 2028년까지 82조 AI 투자 ‘반도체·서비스 생태계 육성’

잇달아 만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은 지난달 28~29일 개최한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2026년까지 80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해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5년간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8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총 103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 관계자는 “SK는 앞으로도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망라한 AI 생태계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CJ제일제당이 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인 ‘2024 CJ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유통업계에서 해외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로 K푸드가 확산함에 따라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국적이 상관없이 글로벌 최고 수준 경영학 석사(MBA) 또는 해외 우수 대학 출신 재학·졸업생

하버드·MIT 출신도 선발... CJ제일제당, 업계 첫 ‘글로벌 인턴십’

을 대상으로 모집해, 전 세계에서 5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인턴 선발은 학업 능력·직무 역량을 비롯해 한국 문화와 K푸드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사업개발 △마케팅 △연구개발 △SW개발 △인사 △디지털홍보 등 부문에서 하버드·스탠퍼드·MIT 등 출신의 우수 인재 18명이 선발됐으며,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다국적으로 구성됐다. 인턴들은 지난해 초 선발됐으며 8월



2일까지 경영진 멘토링, CJ그룹 인프라 체험,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개별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추후 평가 절차를 거쳐 정식 채용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적이 한 인턴십 참가자는 “평소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지원했다”며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다국적 기업 출신 외국인 임원을 다수 영입하고, 일하는 방식·조직문화·인프라 등에서 글로벌 스탠

더드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글로벌 채용 담당자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최고 인재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CJ그룹의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토대로 최고 인재가 ‘온리원(ONLY ONE)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인턴십 외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해외 한인 유학생을 위한 인턴 채용 전형을 진행해 글로벌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여야, AI 지원 모처럼 한목소리... 세액공제 방식엔 이견

21대 폐기된 'AI기본법' 재발의 野 방송3법 강행 탓 상임위 아직 일각 "기업 특혜 논란 생길 수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채택을 검토할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접점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등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정점식·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협성에 따른 차등 규제 조항도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

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안 통과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세액공제 등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감세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 대치 정국도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21대 국회 막바지 과방위에서는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라인 야후 사태' 등 여야 정쟁 현안이 맞물리면서 끝내 전체 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AI 기본법은 논의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AI 기본법 법안 내용을 두고서는 21대 때부터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였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한희 기자 nanch0907@



대통령 비서실장 22대 국회 첫 출석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정진석(왼쪽)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출석했다. 1일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정 비서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與 "상속재산 현금화 때만 세금 부과" 野 "세수확충 없는 상속세 개편 반대"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 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세계 문제와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여러 (해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적용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

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증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BRAVO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BRAVO SPECIAL
노후 건강의 시작과 끝,
혈당 관리

BRAVO INTERVIEW

이형택 오리온 테니스단 감독
테니스 역사바꾼 황재의 스매싱

레시피
삼계탕과 전복죽

세무가이드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고려해야 할 세금은?

PART 1. 당뇨인 2000만 명 시대 '혈당의 습격'

PART 2. 예뻐지고 싶으면 혈당 조절하라고?

PART 3. 당뇨병 관리 '명한자'로 슬기롭게 동행하세요

PART 4. 고혈당만 위험할까? 저혈당도 마찬가지로!

PART 5. 채혈 공포는 안녕,
바늘 없이 편한 혈당측정 기기들

PART 6. 새로 열풍의 명과 암... 혈당 관리에 도움 될까?

최치영 영동상상스튜디오 대표
서체로 개성 보여주는 '폰트자키'의 시대

귀농귀촌
고초 겪던 초기엔
골칫덩어리 농장이었지만...

브라보 여행
하루 여행으로 딱 좋은
당신의 깊은 맛

하방비책
치솟는 파크골프 인기 속
주의해야 할 질환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하늘을 지붕으로,
적막을 전각으로
삼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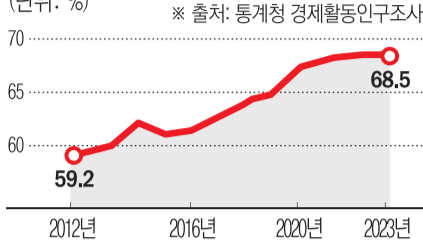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외권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950만 베이비부머 줄줄이 은퇴... 고용연장 합의 필요”

한은,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

향후 10년 경제성장률 0.38%p ↓
정책 뒷받침으로 노령 고용 늘면
경제성장률 하락폭 0.14%p로 줄어
재고용의무화 등 합의 도출해야

55~79세의 계속근로 희망 비중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의 고용연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1일 ‘BoK이슈노트-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

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으로 945만 명에 달한다. 전체인구대비 비중이 18.6%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연구팀은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근로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인 점을 주목했다.

작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작년 68.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를 가정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14%p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0.22%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재취업시 고용의 미스매치가 완화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양호한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 등 비교적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

애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미스매치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추가 하락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1일 서울 강남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1000대의 CCTV를 AI 기반 분석을 통해 관제근무자에게 특이사항을 알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직접 관제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북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 정부 결단 불가피

9월 전공의 모집일정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정리 필요
정부 “조만간 대응방안 발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북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북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5.7%)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북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사직자는 누적 40명에 불과하다. 복지

부 관계자는 “6월 마지막 날 상황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상황은 정부에게 골치거리다. 일부 수련병원은 새로 사직서를 받는 대신 2월에 제출받은 사직서를 처리하면 안 되느냐고 정부에 문의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로 사직 처리하면 이 시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도 소급 취소된다.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해당 시점에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히려 병원장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게 돼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계속 전공의 신분으로 놔둬도 문제가 생긴다. 미북귀 전공의들이 해당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차지해 전공의 신규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북귀 전공의들이 신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참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대상·일정은 수련이 시작되는 9월 1일의 45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공의들의 신분을 정리할 시간은 길어봐야 다음 주 주말까지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북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북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북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북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압박하거나, 북귀·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해 강제로 신분을 정리하는 방식, 올해 하반기 모집에 한해 전공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美 9월 피벗... 두차례 금리인하 예상”

국제금융센터, 하반기 경제 전망
세계경제 연간 3.1% 성장할 듯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9월 통화정책 전환(피벗)과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세계 경제는 연간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봤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행사를 열고 이같이 예상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선진국의 견고한 노동 시장과 가계·기업 재무 개선, 중국 부양 등으로 수요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고금리 부담, 초과 저축 소진, 중국 부동산 부진 등도 작용해 성장세가 완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요인으로는 미국 지표 혼조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복세 취약, 중국의 부문별 불균형 성장 속 제약적 통화정책 장기화, 유럽 정치 불안, 미·중 보호무역 조치 등을 지목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또 하반기 금융 여건에

대해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 “9월 피벗과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거로는 Fed의 완화적인 태도, 정책금리 고점 지속에 따른 후행 항목들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망, 노동 시장 불균형 개선과 실업률 상승 조짐 등을 들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밖에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AI가 주식시장에서 장기 테마로 자리매김하겠지만, 하반기에 단기 조정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버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AI 전환이 아직 초기 국면인 만큼 향후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정책 전환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실물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통화정책 방향 논란 △재정정책 건전성 노력과 선거철 지출 확대간 충돌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 공약 경쟁 등 다양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5월 모바일쇼핑 15.5兆 ‘사상 최대’

온라인쇼핑 7.7% 늘어 20조 돌파
가정의달로 식품 소비 늘어난 영향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소비 증가와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 가량 늘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86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가정의달을 맞아 식품 소비가 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행사인 ‘동행축제’가 5월 한 달간 열려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군 가운데 음·식료품(16.1%), 여행·교통서비스(11.7%)가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동차·자동차용품은 작년 같은 달 마이너스였던 기저효과와 5월 자동차 판매 증가의 영향

으로 75.0% 뛰었다.

반면 패션 부문은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가방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0.2% 급감했고 의복과 신발은 각각 4.7%, 3.2% 줄었다. 가파르게 성장하던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교통서비스(11.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의 비중은 74.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20.0%), 여행·교통서비스(12.3%) 등에서 증가했고 의복(-4.5%), 가방(-9.8%) 등에서는 감소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총선 도박에 쓴맛 본 마크롱... 佛 정치·경제 혼란 가중

에마누엘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 같은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세력이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당을 차지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국민연합(RN)이 압승을 거뒀다. RN은 33.14%의 득표율을 얻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55~29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2년 총선 결과 89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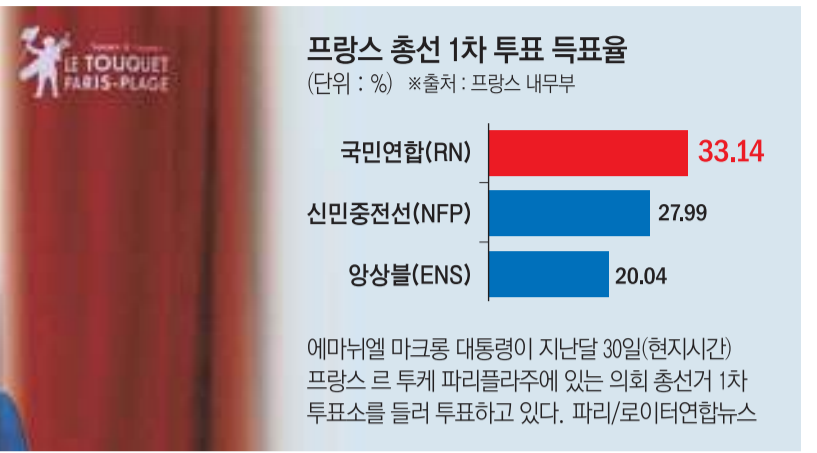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도 27.99%의 득표율로 120~140석을 확보해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은 득표율이 20.04%로 90~125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RN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2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직접 총리를 배출

1차 투표서 극우세력 RN 압승 과반 의석수로 총리 배출 노력 창당 52년 만에 첫 권력 중심 범여권, 득표율 20%로 참패 일각선 국정 마비 우려 제기

하겠다는 복안이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이날 개표 결과 발표 후 “총리 지명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프랑스 재건, 국가 전체의 재결속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다수당 또는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직에 임명하는 관례가 있다. 2차 투표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RN은 제1당에 예약해 의회 권력의 중심에서고, 창당 52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의 기회까지 손에 짚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극우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집



권한 전례가 없다.

반면 지난달 초 유럽의회 선거 참패 이후 도박 같은 승부수를 던졌던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처명상을 입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급부상하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단했다. 그는 극우 돌풍에 따른 위기를 호소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렸다. 하지만 이러한 베팅은 오히려 자충수가 돼 돌아왔다.

총선 결과는 프랑스 정치권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

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사임은 없다고 밝혔지만, 당내 불만과 분열 속에서 리더십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거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안 역시 무산되거나 대폭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정 마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RN과 NFP는 모두재

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전기·가스료 인하 등 RN이 내건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 전체의 4~5%인 연간 약 200억 유로(약 29조 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RN은 이 민자 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커지면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인 ‘프렉시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효선 기자 hsbun@



아테네 잦은 산불에 몸살 그리스 아테네 남동쪽의 케라테아 숲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스는 5월 산불 시즌이 시작된 이후 매일 전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 수십 건이 일어나고 있다. 산불은 지중해 국가들에서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은 여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덥고 강풍도 자주 불면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케라테아(그리스)/신화연합뉴스

공공부채 치솟는 ‘슈퍼 선거의 해’... 금융시장 요동치나

통화·금융안정 최대 위협 지목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 재정 건전성 엄격하게 유지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올해 치러지는 주요 선거에 공공부채가 급증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IS는 연례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던 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정책 입안자, 특히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통화·금융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올해는 전 세계 70여 나라 40억 인구가 최소 한 번씩 표를 던져 행정·의회·지방 권력을 뽑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

이다. 특히 이날 프랑스 총선거 1차 투표가 치러진 데 이어 영국이 4일 총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풍 속에 글로벌 정부 부채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또 프랑스의 지난달 국제 위험 프리미엄은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재는 “리스크 트러스식 부채 위기 사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면 시장이 빠르게 등을 돌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영국은 2022년 리스크 트러스 당시 총리가 취임 후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혼란을 겪었다.

BIS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금융 스트레스가 기준금리 인상 사

이들이 시작된 지 2~3년 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인구 노령화, 기후변화, 국방력 강화, 경기 부양책,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에 따른 비용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임에 따라 민감한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BIS는 환기했다. 이에 따라 BIS는 각국 정부가 공공부채 증가세를 축소하고 재정정책의 건전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BIS는 글로벌 각국이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민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스위스·스웨덴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이르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영 기자 mint@

‘엔저=주가 상승’ 옛말... 日 증시 하락 가능성

엔저 기간 주가 하락한 週 약 40% 마이너스금리 끝나 상관관계 약화

일본증시에서 ‘엔저=주가 상승’이라는 오랜 공식이 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저에도 하반기 일본증시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1일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연초부터 6월 21일까지 25주 가운데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주는 총 18주였지만 이 중 8주는 일본증시 벤치마크인 닛케이225지수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주가 전체의 약 40%에 달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 통상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해에는 엔화 약세와 주가가 오른 주가 80% 겹치기도 했다. 과거 엔저 때와 비교하면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된 셈이다.

이러한 공식이 깨진 이유는 마이너스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엔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초저금리가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엔저로 일본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도 주가 수익비율(PER)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됐다. 실제로 3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 해제 이후 또 다른 일본증시 벤치마크인 토픽스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PER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약 15배에서 14배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일본증시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중국 등 다른 증시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연말 닛케이225지수와 토픽스지수가 현재보다 약 5%, 3% 각각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토픽스는 올해 상반기 19% 뛰면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변효선 기자 hsbun@

싱가포르 물리는 ‘中 AI 스타트업’

美 규제 피해... 1100여개사 활동 자본 조달·첨단 AI 칩 확보 수월

중국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를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1일(현지시간) 찬이밍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부청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허브로 선택하고 있다”며 “지나해 말 기준 싱가포르에는 1100개 넘는 AI 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국가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들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왔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

해 싱가포르를 찾는 것은 규제가 훨씬 덜하고 자본조달이 쉬운 덕분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에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공산당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주문했다. 이로 인해 AI와 관련한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물론 중국에서도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유망 기업들은 있다. 그러나 HB벤처스의 유틱초이 창업자는 “지원받는 기업들은 보통 중국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 첨단 AI 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택하는 이점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금도·약정도·결합도 자유롭게

통신을. 나답게.

KB리브모바일



LiivM 고객 만족도 3년(6회) 연속 1위

2024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MVNO 부문), 컨슈머인사이트

KB리브모바일 모델: *aespa*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Liiv m** 챌린지

틀에 박힌 건 싫으니까 **M**챌린지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Live My Life** 챌린지

- 기간: 24. 06. 20(목) ~ 24. 08. 31(토)
 - 대상: 이벤트 기간 중 KB Liiv M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4세 이상 개인고객 [응모필수]
 - 혜택: 일정 미션 달성 시 [3만 KB포인트]
- 모든 미션 달성 고객 대상 [에스파 포토카드+틴케이스+담요] 제공/400명 추천

- 기간: 24. 06. 20(목) ~ 24. 07. 31(수)
- 대상: 만 14세 이상 KB스타뱅킹 회원
- 혜택: 총 상금 240만원 상당의 경품과 KB리브모바일 공식 SNS계정 및 디지털매체광고에 영상 노출 기회!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m.liivm.com)를 통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리브모바일 고객센터(1522-99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060호(2024.06.24), 유효기간 2024.06.24~2024.09.30까지



KB 국민은행

韓·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대한상의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과베트남의 정부와 주요 기업인들이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향후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팜 밍 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호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현상 대한상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다. 이밖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을 비롯한 350여명의 베트남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팜 밍 쩡 베트남 총리

팜 밍 쩡 총리 “베트남 투자 안정적”
첨단 에너지 등 23건 MOU 체결
안덕근 “2032년 교역 1500억 달성
교역·투자 한층 더 확대해 나가야”

를 비롯해, 응우옌 쩌 중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옌 흥 디엔 산업무역부 장관, 부 이타잉 썬 외교부 장관 등의 정부 인사와 류종타이베트남 밀리터리뱅크 회장, 응우옌 타잉 흥 소비코 사장 등 주요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주요기업과 기관 간 23건의 MOU가 체결됐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에 대한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조현상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면서 각국은 경험의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이며, 양



팜 밍 쩡(앞줄 오른쪽 두 번째) 베트남 총리와 안덕근(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맨왼쪽은 조현상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국에서 함께 찾은 해법은 곧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양국의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해 “2032년 양국 교역의 1500억 원 목표 달성을 향해 교역과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기후변화,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베트남의 첨단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원전 설립 등 경험과 정신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설에 나선 팜 밍 쩡 베트남 총리는 “전쟁 이후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며 지난해 베트남 국내총생산량(GDP) 성장률은 5.05%, 경제 규모 4조4000억 원을 달

성할 정도로 경제지표에 문제가 없다”며 “베트남에 투자환경은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공평하고 평등하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녹색·순환·지식경제분야에 대해선 “협력의 여지가 많은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전기·문화산업·엔터 등 창조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조화로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과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경제 협력의 성과를 알리고 의미를 더하기 위한 ‘MOU 교환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SK(에너지·녹색성장), 포스코(포괄적 금융협력), 효성(바이오·R&D) 등 19개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18개 베트남 기업·정부기관 등이 참여했다. 양국은 협약을 통해 첨단 에너지, 재생에너지, 반도체, 철강, 바이오 등 산업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스마트 팩토리, AI, 교육, 마케팅 등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대기업 63% “하반기 수출 증가할 것”

한경협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

선박·석화·바이오헬스順 전망 밝아
철강·석유제품 기업은 감소 응답
“채산성 개선될 것” 21%에 그쳐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2024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2%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53개 사가 조사에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선박(100%) △석유화학(75%) △바이오·헬스(72.7%) △자동차 부품(70%) △전기·전자(68.3%) △일반 기계(54.5%) △자동차(50%) 등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철강(46.2%) △석유제품

업종별 하반기 수출 증가 전망(단위: %)



(0%) 관련 기업들은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다.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업황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35.4%), ‘신기술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15.6%)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하반기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33.9%),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25.0%)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 과 반대로 응답 기업의 79.0%는 올 하반기

기수출 채산성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비슷(50.0%)하거나, 악화(29.0%)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 비중은 21.0%에 불과했다.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38.7%), ‘수출 단가 인하’(22.7%),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3.6%) 등이 꼽혔다.

올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원부자재 단가 상승(29.0%) △글로벌 저성장 추세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27.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중동 분쟁 확대(15.1%) 등이 나타났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조치(19.6%)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17.9%)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17.5%) 물류 차질 방지 지원(13.2%) △정책금융 확대(12.5%)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엔저 지속 등 환율 불안 요인이 계속된 것이 기업들의 외환시장 안정 요구가 큰 이유로 봤다. 김해욱 기자 haewook@

조직 효율화... 흑자 달성때까지 임원 연봉 동결

SK은 ‘비상경영체제’ 선언

일부 C레벨 폐지·복리후생 축소
이석희 “자강불식으로 위기 극복”

SK은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조직을 효율화하고 흑자 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할 방침이다.

SK은 1일 오전 8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조직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SK은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해 조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업무 영역과 진행 절차, 그에 따른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최고생산 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 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



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한다.

또한 올해 분기 흑자 전환에 실패하면 내년도 임원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축소한다.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사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권역별로 분리·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을 각자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도는 유지하되 근무 시간에는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택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석희(사진) CEO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전체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 자강불식(自强不息)으로 힘쓰고 수지(수익)의 정신으로 폐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로앤컴퍼니,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 국내 첫 출시

대화형 방식... 이달 한달간 무료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은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이다. 모든 스킬은 채팅 방식으로 구동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와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에 대

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의 법률 분야 콘텐츠를 확보했다. 박영사 데이터는 슈퍼로이어 AI에 학습되는 과정을 거친 후 답변에 곧 활용될 예정이다. 고도의 암호화 처리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은 물론 슈퍼로이어 AI 학습에도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사용량에 따라 스탠더드, 프로페셔널 두 가지 월 구독형 요금제로 구성했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사업자에 선정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발효각각복합플랫폼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모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촌에프앤비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1991’과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추진 중이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정책추진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선 9개 지자체가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일원에 대지면적 6323㎡(1912평) 규모로 대형 복합 테마시설을 조성한다.

한편 발효공방1991은 2019년, 교촌이 전통주와 장류 등 프리미엄 발효식품 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2년, 100년 역사의 영양 양조장을 복원 개소한 바 있다. 문현호 기자 m2h@

국내 완성차, 글로벌 398만대 판매... 내수 12% 줄어

5개사 상반기 판매 실적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서 398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로 부진한 내수 판매를 수출이 어느 정도 상쇄하며 전제적인 실적을 방어했다.

지난해 상반기 5개사의 판매 실적이 5년 만에 400만 대선을 회복했으나 내수 판매 부진으로 1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GM·한국사업장·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의 올해 상반기

해외 판매 전년동기비 2.2% ↑

현대차·기아 361만5915대 판매

5개사 국내 판매량은 69만대

현대차·GM·KG 수출 증가세

기국내의 총판매량은 398만4035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0만1835대보다 0.4% 감소한 수치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시장 판매량은 66만9592대로 전년 동기(75만8876대)보다 11.8% 줄었다. 반면 해외 판매

량은 331만2358대로 전년 동기(324만342대)보다 2.2% 늘었다.

이 기간 현대차·기아의 국내의 판매량은 361만5915대로 완성차 5개사 중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판매비중은 90.8%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206만1883대, 기아가 155만40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1.4% 감소했다.

중견 3사의 상반기 판매량은 △GM 한국사업장 26만9422대 △KG모빌리티 5만6565대 △르노코리아 4만2133대로 집계됐다. GM 한국사업장은 수출량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

다.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는 내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2%, 35.0% 감소했다.

완성차 5사 모두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며 내수 부진을 겪었다. 현대차가 12.8% 감소한 34만5704대, 기아가 5.8% 감소한 27만5240대를 판매했다. KG모빌리티가 2만3978대, GM 한국사업장 1만3457대, 르노코리아가 1만1213대로 각각 38.5%, 29.1%, 8.6% 감소했다.

수출은 현대차와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가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

별로 △현대차 171만6179대(1.9%) △GM 한국사업장 25만5965대(31.9%) △KG모빌리티 3만2587대(24.5%)로 집계됐다. 반면 △기아 127만6707대(-0.4%) △르노코리아 3만920대(-41.2%)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은 68만62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국내는 11만1711대, 해외는 57만3921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5%, 2.2% 줄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차 인니 공장 가동률 110%... 아세안 공략 속도

韓 제외하면 가동률 가장 높아

5월까지 누적 판매 19.2만대

현지 특화 전략 차종 4종 생산

베트남·싱가포르 공장 준공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를 교두보 삼아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을 공략한다.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HMMI 생산능력은 2만300대, 생산실적은 2만2520대로 총 110.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한국 공장 가동률(114.9%)을 제외하고, 현대차의 해외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50.3%를 기록했던 HMMI 공장 가동률은 같은 해 4분기 63.6%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00%대를 넘어섰다.

HMMI의 누적 생산 대수는 5월 말 기준 19만2792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치가 더해지면 상반기를 전후로 누적 2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5월까지 HMMI의 누적 수출 물량도 2만288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8984대) 대비 20.5% 늘었다.

현대차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HMMI를 준공하며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약 77만7000㎡의 부지에 오는 2030



현대차 HMMI 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년까지 약 1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HMMI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세안에 만든 완성차 공장이다.

현재 HMMI에서는 현지 특화 전략 차종인 크레타와 △다목적차량(MPV) 스타게이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아이오닉5 등 4종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산업단지(KNIC)에 건설한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그린파워가 지난해 6월 완공했다. HLI그린파워의 인도네시아산 배터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현대차

모델은 신형 코나 일렉트릭(EV)이다. 현대차는 최초로 전기차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747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44.3%)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앞세워 전기차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특화 차량 등 현지화 판매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싱가포르에도 생산 시설을 준공하며 아세안 지역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삼성, 파리서 '갤럭시 언팩' 공개하나

10일 현지서 '갤럭시 언팩'

이르면 이달 제품 출시 전망

아이패드 신제품에 맞대응

삼성전자가 오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새로운 태블릿 PC '갤럭시탭 S10' 시리즈를 깜짝 공개할 것이라 관측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애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던 갤럭시탭 S10 출시를 상당 기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을 선보인 애플의 공세를 막기 위한 조기 출시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S10을 이번 언팩에서 깜짝 공개한 후, 이르면 이번 달 내 국내 출시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달 중 신규 갤럭시탭 마케팅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탭 S10은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디자인과 사양 측면에서는 전작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IT 팁스터 등이 공개한 '갤럭시탭 S10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갤럭시탭 S9 울트라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14.6형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올메탈 구조로 제작돼 방수 기능도 지원한다.

용량은 전작과 유사한 256GB, 512GB 및 1TB 스토리지에 12GB, 16GB 램 옵션이 예상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부터 탑재했던 퀄컴 스냅드래곤과 함께 미디어텍의 AP를 병행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탭 S10에 기본형을 빼고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만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애플 아이패드와 경쟁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5월 애플은 11형과 13형 모델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은 20.1%로 전년 동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은 35.6%로 전년(41.8%)보다 6.2%포인트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인 애플이 올 상반기 '태블릿 OLED'와 최신 AI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로 하반기 높은 흥행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탑재한 최신 태블릿을 조기 공개하며 애플과 정면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출범... 그룹 내 복합소재 일원화

내구성·강성·친환경성 소재 확보

코오롱그룹은 그룹 내 복합소재 관련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코오롱스페이스웍스(KOLONSPACEWORKS)'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복합소재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을 고분자 재료와 혼합해 무게를 대폭 줄여 철보다 강하지만 훨씬 가벼운 특성을 가진 초경량 신소재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항공 및 방산 분야의 복합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코오롱테크컴퍼지티브와 코오롱글로텍의 차량 경량

화부품·방탄 특수소재·수소탱크 사업, 코오롱ENP의 차량용배터리경량화소재 등 그룹 내 복합소재 사업들을 계열사 간 인수 방식으로 일원화해 출범하는 회사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의 사명에는 바다, 육지, 하늘을 넘어 우주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Space)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내구성·강성·친환경성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향후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 단일소재로는 불가능한 물성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미래 거주와 이동 가능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오원선 코오롱테크컴퍼지티브의 대표와 함께 코오롱 전략 총괄을 담당했던 안상현 전무가 새로 대표로 선임돼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

안상현 신임 대표이사는 "에너지, 모빌리티, 통신,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이 받을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개발(R&D)에 대한 글로벌 인적 역량 확대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orlune@

두산에너지빌리티, 2600억규모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순수우리기술로 만든 가스터빈을 포함한 복합발전소 주기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동발전과 2600억 원 규모의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럭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1993년과 1997년 2차에 걸쳐 준공된 분당복합발전소 1·2블록을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380메가와트(MW) 규모 H급 초대형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열공급설비 등을 2028년 3월까지 분당복합 1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국내 340여 개 산학연이 함께 개발한 K-가스터빈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넣은 한국남동발전이 안정적인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가스터빈을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계약을 2019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보령신복합발전소, 지난 1월 안동복합발전소에 380MW급 가스터빈을 포함한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가스터빈 관련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toto@

벤처기업 AI경쟁력 지원... 'AX브릿지위원회' 출범

70%는 AI 전환 계획·추진 중이나 비용·정보부족 등 애로 사항 넘쳐 벤처협회, 성장 돕는 위원회 꾸려

글로벌 푸트테크 기업 고피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저렴하게 즐기는 패스트푸드 콘셉트의 1인 피자를 만들고 있다. AI 기술을 적용해 적은 인력과 작은 공간에서도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다. 고피자는 한 달 만에 250개 매장 출점을 완료했고 올해는 2000개 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AI 기업 포티투마루는 도메인 특화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업의 AI 모델은 각종 질문에 알맞은 답을 제공하고 문서 요약, 초안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금융과 보험, 자동차, 엔지니어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포티투마루의 AI 기술, 솔루션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열린 'AX브릿지위원회' 출범 포럼에서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사용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엔클라우드 스페이스에서 벤처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AX(AI transformation)브릿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엔 AX브릿지위원회 운영위원, AX 분야 선도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AX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는 생성형 AI, 초거대 AI,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등 IT 기반 자체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AI가 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됐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벤처기업 AX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전환을 계획 또는 추진 중인 기업은 69.3%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응답기업 71.4%는 기술 전문 인력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외에도 비용, 정보 부족의 애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X브릿지위원회는 세 가지 활동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다. AI 분야 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며 벤처기업협회의 장점인 정책 제안 기능을 활용한 AI 산업 발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테크 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연결을 통한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기업 내의 업종 전문가와 AI 기술 전문 인력 간의 가교로 인력 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지

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성상업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AX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럼에서는 AX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AI 언어지능, 빅데이터, AI 제조, AI 플랫폼 등 AX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AX가 가져온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42Maru) 대표는 'AX, is Here'를 주제로 AI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X 사례들을 소개하고,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고피자 임재원 대표는 '외식업에서의 AX 필요성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대표는 "자체 개발한 AI 스마트 토포핑 테이블을 통해 피자 토포핑 과정을 교육, 채점해 피자의 품질 및 일관성을 높이며,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메뉴 출시와 인력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대통령상 KOREA BRAND AWARDS 2023-2024

본 시상식은 2023-1659-002401 | *2023년 24회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산업정책연구원 *허가사(제조 또는 제조 의뢰사)·(유)한홍제약·(만)매사(주)녹십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중고차 신규렌탈 月 1000대 돌파

롯데렌탈, 하반기 실적 반등 예고

3분기 매출 7%·영업익 13% 오를듯

지난해 매출 정체와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한 롯데렌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다수 전문가는 롯데렌탈의 실적 정체가 2분기를 마지막으로 3분기부터 반등세로 돌입하리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2분기 컨센서스로 매출 6928억 원, 영업이익 751억 원 달성이 예상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0.6% 증가, 12.0% 감소한 수치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조 7523억 원, 영업이익 3052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0.5% 느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1.0%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영업이익은 569억 원, 매출은 6569억 원으로 각각 33.3%, 8.9% 줄었다. 지난해 6월 중고차 장기 렌탈 및 상용차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사고 리스크 관리와 고객 리텐션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중장기 사업 목표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도입한 영향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내림세에 반전이 예상된다.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46억 원, 920억 원으로 6.9%, 13.0%씩 증가, 4분기는 각각 7203억 원, 826억 원으로 10.0%, 5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업인 장기렌터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새로운 핵심 전략인 중고차 렌탈 부문이 순항하고 있어서다.

장기렌터카 매출의 선형지표인 순증 대수는 작년의 경우 연간 내내 마이너스였지만, 부채비율의 안정화로 장기렌터카 투입 대수가 올해부터 순증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순증한 차량은 2~3개월 후 장기렌터카로 투입되며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 아울러 롯데렌탈이 핵심 사업으로 꼽는 중고차 렌탈 신규 투입 대수는 올해 1월 이후 월 1000대를 돌파하는 등 안정화에 들어간 상태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장기렌터카 순증, 중고차 장기 렌탈 호조 등 여러 지표가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기후변화를 기회로"... 한일, 경영전략 실천

한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영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천, 활동을 공개했다.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와 주력사업을 추진하는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았다.

한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영향과 기간별 영향도를 측정해 중장기 추진 로드맵,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에 반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집중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단기 대응 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반영해 근원적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 구성했다.

한일은 ESG 위원회 등을 통해 ESG 이슈 전반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요소를 식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전략적 온실가스 관리를 목표로 G-Unit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을 상세히 담았다. 회사는 "앞으로도 ESG 이슈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계 리더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脫네이버’ 속도내는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은 보류

日 2차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네이버·소뱅 단기 자본이동 곤란” 자본관계 재검토 완료 시한 압박해 계속 논의... 장기화 될 가능성 커 시스템분리 2026년 12월 → 3월 클라우드 업무위탁은 내년 종료

오늘 과방위 증인 최수연 관심 고조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당장은 자본관계 재검토가 어렵고,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문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라인야후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 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양사 간에 단기적인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도

라인야후 사태 일지

2023년 11월	라인야후, 네이버 클라우드 통한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3월	일본 총무성 1차 행정지도,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 체제 개선 요구
4월 1일	라인야후, 일본 정부에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내용 보고서 제출
4월 16일	일본 총무성, 재발방지책 불충분 사유로 2차 행정지도, 7월 1일까지 대응책 보완 요구
2024년 5월 8일	라인야후 CEO, 네이버와 위탁관계 순차적 종료 및 기술 독립 추진 내용 대응책 발표
	네이버 출신 신중호 CPO, 이사회서 제외 발표.
6월 14일	라인야후, 일본서 라인페이 서비스 순차 종료 발표
6월 18일	라인야후, 주총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계획 및 일본 내 서비스 위탁 종료 발표
6월 20일	소프트뱅크, 주총서 “네이버와 협의 중...협상 아직 안 됐다” 입장 발표



달했다는 공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해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고, 개인 정보 51만여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올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네이버 지우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등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

)도 소프트뱅크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기술·기술팀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또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내년 3월에 종료하겠다는 목표로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달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 관련 업무 위탁 종료는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

정”이라며 “네이버와 기술적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다케시 CEO는 구체적인 위탁 서비스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고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증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는 2026년 3월에 끝날 것이라 밝힌 셈이다. 이는 기존 계획이었던 2026년 12월 대비 9개월 빨라진 것이다.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라인야후가 이번 보고서에 자본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라인야후 모기업인 네이버에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선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KT 안전·보건총괄 신설 브랜드전략실 확대 개편

엔씨 출신 AI 전문가 영입

KT가 안전·보건 기구와 브랜드 전략실을 신설하고, 일부 임원 인사를 시행했다.



1일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브랜드 전략실과 사내독립기구 안전·보건 총괄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브랜드 전략실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담당인 윤태식 상무가 맡는다.

경영지원부문 소속 브랜드 전략실은 기존 조직 기능을 확대해, 그룹 차원의 기업 이미지(BI·CI)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그룹 시너지 강화를 추진한다. 또 사내독립기구로 안전·보건 총괄을 신설했다. CEO 직속기구로 안전·보건 총괄에는 경영지원부문장 임현규 부사장이 겸직한다.

기존 인공지능(AI) 담당 조직 AI 2XLab 산하 ‘AI 코어 기술 담당’에는 엔씨소프트 AI 테크 센터장이었던 신동훈(사진) 상무를 영입했다. KT는 ‘AICT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AI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업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보통 연말 이뤄지는 인사와 달리 소폭 인사로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나 좀 크게 조직 변동이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날 ‘AICT 컴퍼니’ 전략에 기반한 올해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KT는 보고서에서 올해 ESG 중점 어젠다를 ‘환경보전’과 ‘포용 사회’로 정의하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ESG 경영 핵심 이슈로는 △AI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고객 중심 서비스 및 만족도 관리 △윤리 및 정도 경영 확립을 선정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추천인재 입사땀 1000만원 포상”... 보안업계 ‘MZ 유치戰’

급여 수준 낮고 근무여건은 열악 안랩 등 퇴사 줄이어 ‘인력난’ 허덕 플랫폼 기업·계임사 등 선호 사내 근무환경·복지 개선 대응 해외인력 유치로 활로 찾기도

국내 정보보안 업계가 북한·중국·러시아 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IT)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각사마다 사내 근무환경·복지 제도 등을 개선하며 ‘MZ 개발자 모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안랩의 최근 6개월간 입사자 수는 106명, 퇴사자 수는 94명이었다. 가장 퇴사자가 많은 달은 지난해 12월로, 8명이 입사할 때 30명이 퇴사했다. 안랩은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27명, 42명을 채용했지만 여전히 퇴사자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24년 5월 기준 윈스의 입사자는 2명, 퇴사자는 7명이다. 같은 기간 파수는 1명 입사할 때 3명이 퇴사했다. 파이오링크는 5명 입사, 7명 퇴사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지난해 발간한 ‘202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기업들의 기술개발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기술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가 71.8%(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보보안 업계의 급여 수준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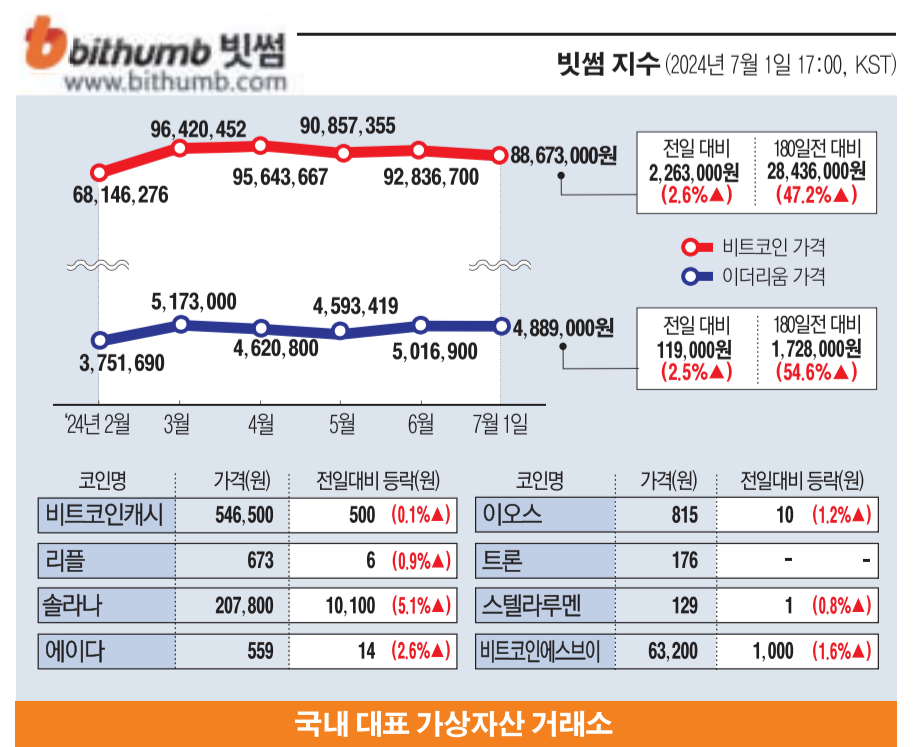
타 IT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랩의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68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1인 평균 급여액이 1억1900만 원, 카카오가 1억1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다. IT 개발자 직군 취업을 준비하는 A 씨는 “취준생(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기업의 연봉과 ‘브랜드 파워’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보안업계 관계자 B 씨도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임금 수준 때문에 인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라며 “(개발자가) 플랫폼 기업이나 계임사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안 업체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안업계는 MZ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내 근무환경·복지제도 등을 ‘짚개’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 출퇴근제’, ‘자기개발 지원’, ‘성급급제’ 등이 꼽힌다. 안랩은 독서, 운동, 여행, 가

족모임 등 스스로 원하는 복리후생을 골라 받는 ‘아싸(ASS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주택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선택하는 자율 출근제와,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엔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한다. 입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입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 ‘인재 추천 포상’을 운영하고 있다. 파수는 주택자금대출제도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추천채용장려금’으로 경력사원은 최대 500만 원, 신입직원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외인력 유치로 활로를 찾는 기업도 있다. 지니언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 모집에 나서고 있다. KISIA의 ‘정보보호산업 인재 양성 과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보안업계 관계자 C 씨는 “IT 개발 언어는 국가를 따지지 않지 때

문에 해외 인재도 충분히 들여와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새먹거리 눈돌린 CDMO업계... 'ADC 툴박스 시대' 연다

삼바 연내 생산설비 완공·가동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카나프와
ADC 기술 플랫폼 공동개발 등
ADC협력·자체기술 투자 나서
업계 "진입장벽 낮춰 시장 활성화"

ADC 툴박스 개요

ADC 툴박스란?	- 고객사에 ADC 생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개발 또는 도입한 링커, 페이로드기술을 내재화한 것 - 고객사는 ADC CDMO기업의 툴박스를 활용 ADC 치료제 개발 가능
장점은?	- ADC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제품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보유 기업은?	- 스위스 론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CDMO 기업 -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말 구축 예정 (에임드바이오와 링커-특수기술 공동개발 중)

항체약물접합체(ADC)가 미래 항암제로 주목받으며 이를 생산하는 ADC 위탁개발생산(CDMO)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CDMO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ADC기업과 협력으로 외부에서 도입해 ADC 툴박스를 개발하는 등 'ADC CDMO'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주 쓰는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박스가 ADC 생산에도 적용된다. 고객사가 CDMO기업의 ADC 툴박스를 사용하면 툴박스에 내재된 페이로드(약물), 링커 중 원하는 기술을 선택해 ADC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CDMO기업은 고객사 의뢰로 ADC 치료제를 생산한다.

국내 대표 기업은 ADC 툴박스 출시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존림 대표는 지난달 초 열린 바이오USA 간담회에서 올해 말 ADC 툴박스 구축을 자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DC 툴박스는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기술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가 투자한 6개 바이오텍 중 스위스 아라리스바이오테크(링커기술), 한국 에임드바이오(항체·ADC), 미국 브릭바이오(인공 아미노산 기반 링커기술) 3곳이 ADC기업이다. 에임드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링커-특수기술을 공동개발 중이며, 이를 ADC 툴박스로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2월 ADC 전용 생산시설 완공 및 가동을 앞두고 있어 ADC CDMO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DC 공장은 500L(리터) 링커 접합 반응기와 정제 1개 라인이 구축되며, 완공과 함께 ADC 툴박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항체신약 개발사가 ADC로 확장을 원하거나 고객의 ADC 개선을 원하면 ADC 툴박스를 제공해 ADC 의약품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카나프테라퓨틱스와 ADC기술 플랫폼을 공동개발 중이

고, 다른 기업과도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BMS로부터 인수한 미국 시러큐스공장의 ADC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어 2025년부터 ADC를 생산할 계획이다.

ADC CDMO 사업은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내 ADC기업 A사 대표는 "ADC가 신약개발 기업 영역이었지만 CDMO기업 비즈니스로 변하고 있다. CDMO기업이 ADC기업의 기술을 사오거나 공동연구로 ADC 툴박스에 내재화하면 ADC를 개발하지 않는 기업도 툴박스를 통해 ADC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사 대표도 "항체 회사는 많지

만 링커, 페이로드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ADC 개발을 엄두도 못 냈다. 그러나 툴박스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툴박스를 이용하면 ADC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존 ADC기업도 선택지가 많아져 링커, 페이로드기술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ADC 툴박스 성공요소로 다양성을 꼽는다. 새로운 링커, 페이로드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ADC 툴박스를 구성한 기업은 소수지만 향후 고객사 확보 전략 중 하나로 후발주자 중심의 ADC 툴박스가 증가할 수 있어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A사 대표는 "ADC 툴박스는 메뉴판이다. 식당을 방문한 손님(고객사)이 메뉴판(ADC 툴박스)에 있는 메뉴 중(링커, 페이로드 등)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식당이 잘 되기 위해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어야 한다. 향후 ADC 툴박스가 대세가 되면 누가 더 많은 메뉴를 갖고 있는냐의 싸움이다. CDMO기업이 ADC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협약을 맺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infactor@

바이오시밀러 문턱 낮춘 美 '차별화' 고민 커진 K바이오

FDA 靚바이오시밀러 정책에
진입 쉬워져 경쟁심화 불가피
바이오시밀러 제품 폭락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관련 '상호교환성(인터체인저블)' 인정 방식을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FDA는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입증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 '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시 고려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의 상호교환성 입증에 추가 임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간 스위칭 시험(switching study)을 실시해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험을 하지 않고 추가 서류만 제출해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교환성을 입증한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에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의사개입 없이 오리지널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수월하게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바이오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친 바이오시밀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미국은 2018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BAP)'

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승인·처방을 지원해 왔다. 따라서 그간 추가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었던 만큼, 상호교환성을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국내 기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셀트리온은 '렘시마'를 비롯한 6개 품목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온트루잔트' 등 5개 품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다.

다만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장점 확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상호교환성 인정 문턱이 낮아지면, 기존과 달리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더는 담보하지 못해사.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시행 이후에도 시장에 영향이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품질과 효과성 등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0년 2900만 달러(402억 원)에서 연평균 139.4%로 성장하며, 2026년 54억 6000만 달러(7조 5719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전문가는 "FDA 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국민 의약품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국 시장에 진입이 수월해지는 것은 기업에 좋은 소식일 수 있어도, 점차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증가해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성주 기자 hsj@

실적부진 동아에스티... 구원투수에 정재훈 사장 등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장 맞교환
정 사장 '조직쇄신·성장동력' 과제
하반기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결과



다. 매출은 전년 동기(135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9.0% 대폭 감소했다. 수익성은 R&D 비용 증가의 영향이다.

2분기도 녹록지않을 전망이다. 의정갈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축소·중단된 여파 탓이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 폭을 확대하기는 힘든 가운데 R&D 비용 지출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할 것이라 우려가 크다. 회사 측은 "정 사장은 동아에스티를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동아에스티에서 조직쇄신과 성장동력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회사의 중추인 전문의약품(ETC) 영업에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가 추진할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약개발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는 만큼, 수익성과 R&D 투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을 찾으면서 혁신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에서 허가를 앞둔 R&D 파이프라인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15'다. 지난해 6월 유럽의약품청(EMA),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각각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올해 중반 실사를 거쳐 하반기 유럽,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가 목표다.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쓰이는 스텔라라는 지난해에만 14조 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다양한 글로벌 R&D 성과도 대기 중이다.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개발 중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DA-1241'은 하반기 임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한다. 또 미국에서 임상 1상 중인 비만치료제 'DA-1726'은 내년 초 임상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유희은 기자 euna@

사회공헌 힘쓰는 한국애브비... '11회 가능성 주간' 성료

임직원 209명 자원봉사 참여해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등 진행

한국애브비는 전 세계 애브비 직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제11회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가능성 주간은 2013년 창립 이후 계속된 애브비의 직원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한국애브비 '2024 가능성 주간'은 임직원 중 209명이 자원봉사로 참여



한국애브비 임직원들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시설에 기부하기 위한 '공기정화식물 모자이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해,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공기정화식물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애브비는 환자 중심의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스타벅스 韓상륙 25년... 원톱 커피브랜드 된 비결은

올해 개점 25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 카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다. 글로벌 최초 '사이렌 오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주문제) 도입, 텀블러 이용시 할인 제도 등 차별화한 서비스와 친환경 경영 정책으로 국내 카페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1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호점은 이대R점으로 1999년 7월 27일 문을 열었다.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현재 전국에 1914개 매장을 두고 있다. 개점 이후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 판매량은 13억 잔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1호점 개점 이후 국내 카페 문화를 선도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92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98억 원으로 14.2% 늘었다.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도 높은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연구소가 6월 소비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타벅스는 커피전문점 분야에서 브랜드

1999년 이대 앞에 첫 매장 열어 현재 전국 1900여곳 돌파 작년 영업이익 1400억... 14%↑ 사이렌 오더 전세계 최초 도입 프리퀀시 홍보·친환경 정책 성과

평판 1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의 독보적인 성장의 비결에는 다른 커피전문점과 차별화한 운영 방식이 주효했다. 특히 2014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이렌 오더는 획기적인 주문 방식으로 꼽힌다. 사이렌 오더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주문하는 서비스로, 국내 출시 2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주문 수는 4억 회다. 줄서지 않고 주문하면 되는 편리함 덕에 미국에 역수출된 서비스다. 프리퀀시를 통해 차별화한 브랜드 마케팅도 스타벅스



강점 중 하나다. 프리퀀시는 음료를 사면 증명하는 일종의 '스티커' 개념으로 일정 수를 다 모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매년 고품질의 사은품을 준비해 충성 고객들 사이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영국 브랜드 '헌터'와 손을 잡고 우산과 레인 판초(우비) 등을 준비했는데, 이미 물량 상당수가 품절된 상태다.

스타벅스의 프리퀀시 이벤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름철 비슷한 마케팅을 하는 다른 카페 브랜드들도 생겨날 정도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도 스타벅스만이 아닌 형성한 비결이다. 스타벅스는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 400원을 할인하거나 에코별 적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폰에 해당하는 별을 12개를 모으면 무료 음료로 교환할 수 있다. 매월 10

일에는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날 개인 컵을 사용하면 에코별을 2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2026년까지 전국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매년 개인 컵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5월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는 1285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5월까지 개인 컵 이용 건수는 1억5300만 건이며, 고객에 제공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58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인사 분야에서도 장애인, 외국인 등 차별 없는 채용으로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의 경우 2007년부터 채용했는데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이 4%를 넘어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동종 업계 최초로 외국인 바리스타 채용도 시작했다.

김지영 기자 kiy42@



더현대 서울, 이탈리아 포지타노로 변신 현대백화점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전국 16개 점포에서 '포지타노의 태양(Sole di Positano)'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은 세계적 휴양지인 이탈리아 남부 마을 포지타노의 상징 레몬나무와 노란 빛깔의 파라솔, 초대형 태양 등을 활용해 비강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해외 대표 휴양지를 콘셉트로, 매년 여름 선보일 독자적인 시그니처 테마 행사의 첫 시작으로, 차별화한 여름 테마 행사를 통해 새 비강스 명소를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맞 올린 '통합 이마트' 시대... 시너지 본격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통합 법인이 공식 출범, 본업 경쟁력 강화와 통합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한다.

이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자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합병 중료를 보고하는 이사회를 열고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번 합병을 진행했다. 이마트는 매입과 물류 등을 통해 주요 분야의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고객 기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합 이마트는 향상된 구매 협상력을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여 독보적인 가격 리더십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동시에 통합 물류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자원 재배치로 개선된 수익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목표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올해 들어 가격역주행 프로젝트를 통해 기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완료 공동매입·물류 통해 수익성 개선 가격리더십 확보... 고객혜택 강화

획 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하는 통합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7월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 70여 개 점포에 이마트 후레시센터와 미트센터 신선상품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연내 140여 개 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 근처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마트 기획 상품 등이 늘어나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 증대와 편의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역시 통합 이마트와 함께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로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



한재양 이마트 대표

할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이마트는 합병 후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 정비 기반을 다지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마트24 역시 통합 마케팅을 비롯해 노브랜드 기반의 신규 가맹모델 출점 등을 통해 협업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노브랜드 사업모델을 채택한 신규 점포는 50여일 만에 100호점을 넘어서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합병 시너지를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신라兔, 인천공항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와일드무어 등 다 상품 보유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를 처음 선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에 총 316㎡(96평) 규모로 인천공항 유일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는 일반 매장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발렌타인(BALLANTINE), 로얄살루트(ROYAL SALUTE), 존니워커(JOHNNIE WALKER), 발베니(BALVENIE) 등 10개 브랜드를 만나

볼수 있다. 특히 바닐라 향이 특징적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의 와일드무어는 국내에선 신라면세점이 최초로 선보이는 상품이다.

또한 글렌모렌지(GLENMORANGIE)와 헨네시(HENNESSY)는 시음 코너도 마련했다. 신라면세점은 개점 이벤트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류 상품별 최대 30% 할인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와인잔, 코스터, 트래블 백 등을 제공한다. 또 발베니 상품 구입 시 한국 전통 문화와 접목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에서 1000달러 이상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8월에 여는 성수동 발베니 팝업 스토어 디너 초대권을 증정한다.

유승호 기자 peter@

K-소주 대표 '진로', 23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진로(JINRO)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를 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Drink International)'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서 하이트진로는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소주 제품들을 진로로 통합해 브랜드를 운영하며 현지 주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상자당 9리터(L) 기준)가 판매됐으며, 이는 1초당 77병씩 팔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작년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 팔려 현재 80여 개국에 소주 제품 수출

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증류주 브랜드 대부분의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진로는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늘어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진로의 판매량은 2위를 기록한 필리핀 증류주 브랜드보다 약 3배 이상 팔렸으며, 최근 위스키 열풍 주역인 스카치위스키의 주요 브랜드들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약 2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약 80여 개국에 소

주 제품을 수출하며 8개국에 불과하던 우선 공략 국가를 현재 17개국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현지 가정 채널 입점을 확대하고 페스티벌 참여와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며 제품의 접근성과 인지도, 그리고 현지 음용률을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비전 2030'으로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선포하며 2030년까지 해외시장 소주 매출액 5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글로벌 증류주 1위 브랜드인 진로를 앞세워 글로벌 증류주 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김지영 기자 kiy42@

늘어난 규제에 늘어난 부채... “대출막차” 영끌심리 부채질

5대은행 가계대출 3개월째 증가

‘2차 스트레스 DSR’ 9월로 연기
주담대 금리 최저 연 2%대 하락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수요 급증
가계대출잔액 한달새 5.3조 증가
증가폭 2년11개월 만에 최대치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또 다시 5조 원 넘게 늘어났다. 3개월 연속 확대된 것으로 증가 폭도 2년11개월 만에 최대다. 부동산경기 회복세 속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대까지 내려간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수요가 크게 물린 영향이다.

대출한도가 수천 만 원 가량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연기되면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 원)보다 5조3415억 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올 3월(-2조2238억 원) 이후 세 달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최대로 2년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5월(5조2278억 원)보다 더 컸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폭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견인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잔액은 6월 말 기준 552조1526억 원으로 전월(546조3060억 원) 대비 5조8466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 529조8922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22조 원 가량 치

솟은 것이다. 최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담대가 들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9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연 2% 후반까지 내려왔다.

전세자금대출도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8

조2226억 원으로 한 달 전(117조9827억 원)보다 2399억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잔액은 102조7781억 원으로 전월(102조9924억 원)보다 2143억 원 쪼그라들었다.

올해 시중은행이 기업금융에 힘을 쏟으면서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 원으로 전월(803조3231억 원)보다 8조250억 원 늘었다. 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44조342억 원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대출잔액은 648조8566억 원에서 652조4661억 원으로 한 달 새 3조6095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잔액은 154조4665억 원에서 158조8821억 원으로 4조4156억 원 확대됐다.

원화 대출 규모는 1540조9816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3239억 원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미룬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호우·침수 ‘長魔 올라’...보험사 비상체제 돌입

장마 초기 강수량 평년 3배 ↑
삼성화재 비상체제 운영 시작
현대해상 데이터 기반 대비
당국도 긴급대피 알람 실시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한 도로가 소나기로 침수된 가운데 한 시민이 침수된 차량을 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이 장마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손해보험사도 흑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는 물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올라간 만큼 자체 비상체제를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초반 평균 강수량이 368.6mm로 이미 평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비는 368.6mm로 평년의 3.5배에 달했다. 정체전선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 최대 100~150mm 이상이다.

장마철 피해가 크면 클수록 손해율이 올라가는 손보사들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침수예방 비상체제를 운영한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할

등을 한다. 침수 전 사전 조치도 활성화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고장출동자와 연계해 차량대피 알람 시스템을 활용한 침수 위험 차량 사전 알람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또 하이카프라자 긴급 견인지원단 전국망 정비와 비상 연락망 등 업무분장을 정비했고 지역별 차량 집결지를 확보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침수 사고多发 지역을 선정하고, 수위인지 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부서와 현대해상 현장출동 관리부서 등에 수위 정보를 공유해 침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람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침수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차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 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 침수 예방요령을 사전 숙지해야 한다”며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신한은행, 韓은행 첫 멕시코 몬테레이 지점 개설

신한은행은 유망 성장시장의 전략적 거점 확대를 위해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멕시코 신한은행 몬테레이지점’을 개점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멕시코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2008년 11월 대표사무소를 개소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2015년 9월 예비인가,

2017년 12월 최종 영업인가를 획득하고 2018년 한국계 은행 최초로 ‘멕시코 신한은행’을 출범시켰다.

멕시코 신한은행은 몬테레이지점을 거점으로 다양한 현지 영업을 추진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은행 역할 확대”

창립 48주년 기념사...“복합금융” 강조

윤희성(사진)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전통적인 수출신용기관을 넘어 국제협력은행으로서 역할을 확대해나가기”고 주문했다.

윤 행장은 이날 수은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수출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다각화해나가고 있다”며 “수은도 기존의 대출·보증 위주 업무에서 복합금융 확대를 통해 업무를 고도화해나가기”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은의 목표는 빠른 추격자가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수출신용기관(ECA) 모델의 새



로운 이정표가 되자”라고 독려했다.

윤 행장은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며 “정부 대외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업무 정합성 제고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뒷받침해나가기”고 역설했다.

이어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해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 담당하게 된 공급망안정화기금업무와 경제외교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청렴의 문체에 관한 한 타협과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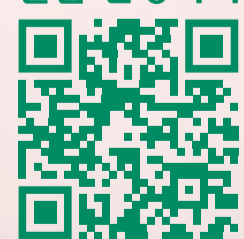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잘 관리해 준다더니... 보험설계사 이직에 '고아계약' 속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등 퇴사하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계약유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의 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은 직접 얼굴을 맞은 설계사에게 꾸준히 문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고객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36.9%로, 전년(39.0%) 대비 3.1%포인트(p) 떨어졌다. 정착률이 높을수록 설계사가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보험 영업을 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 설계사 정착률은 53.2%였다. 1년 새 1.0%p 오르는데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둔 것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13회차 유지율은 생보업계 83.2%, 손보업계 86.3%로 전년 대비 각각 2.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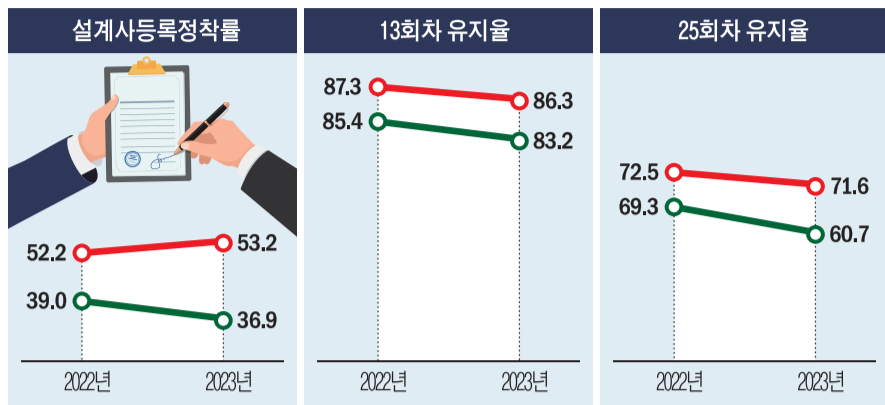
'GA 전성시대' 설계사 정착률 하락 생보사 36.9%... 1년 새 3.1%p ↓ 손보사도 53%, 절반이 1년 못 버티며 보험사 신뢰 하락, 계약유지율도 폭

"고객관리 소홀 문제점, 당국 나서야"

1.0%p 하락했다. 25회차 유지율도 60.7%, 71.6%로 8.6%p, 0.9%p씩 줄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GA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이직이 잦아졌고, 그 결과 전 직장에서의 맺었던 계약들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고객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복잡하고 방대한 계약 내용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서 꾸준히 관리받기 위해 대면 채널을 찾는 고객이 대부분인데, 계약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정보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어서다.

보험계약관리(단위: %)



※ 출처: 금융감독원

계약을 담당한 설계사나, 그 계약을 물려받은 새 담당자나 고객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은 그럴만한 유인이 없어서다. 퇴사하는 설계사는 그간 맺어온 계약에 대해 잔여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안내에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그의 관리자나 동료 설계사가 계약을 새로 맡게 되지만, 민원 응대나 계약 내용 변경 등의 업무만 할 뿐 관련해서 얻는 금

액적 이득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신규 설계사라면 잠재고객의 정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기꺼이 인계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고객 민원과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계약의 실효·유지·갱신 안내 의무가 있는 보험사도 계약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담당 설계사에

게 지급했던 수수료나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데, 담당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아 계약들을 전담하는 본부가 보험사에 따로 있지만 일단 고객 입장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해당 계약 유지 유인을 만들어 철저하게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체의 이미지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맞춤형 설계 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신협중앙회, 1조 규모 부실채권 정리 추진

자회사·NPL펀드 통해 8500억 해소 전국 신협 부실채권 일괄매각 추진도

신협중앙회가 총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정리에 나섰다 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회원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중 업무 개시를 앞둔 부실 정리 자회사 'KCU NPL 대부'를 통해 연말까지 35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를 통해 5000억 원을 매입해 총 8500억 원

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협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준에 맞춰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원 기자 jsw@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누리세요

첫 가입 시 연회비 1년 면제

신한카드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위크(with) 신한카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신세계 그룹의 온오프라인 계열사(G마켓·옥션, 이마트, SSG닷컴,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으로 작년 6월 출시했다.

신한카드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7일까지 신한 솔(SOL)페이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하기를 통해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게 1년 무료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가입이 완료되면 G마켓과 옥션에서 사용이 가능한 웰컴 스마일 캐시 5000원과 신한카드 3000원 중복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신한카드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고,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속한 곳에서 신한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스타벅스는 2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탬프 1개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스탬프 2개 이상 적립 시 마이신한포인트가 지급된다. 스탬프 적립 개수에 따라 최대 1만 마 이신한포인트가 지급된다. 신한솔페이 또는 신한 슈퍼솔로 합산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 마이신한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해당 이벤트는 7월 말까지 1개월 동안 운영된다. 정성원 기자 jsw@

우리금융, 쪽방촌 치과치료 돕는다

서울역 앞에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개소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역 쪽방촌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권호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구강관리플러스센터' 협약식과 개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는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취약계층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치과 진료소다.

서울시가 진료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진료소 인테리어를 포함해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교수와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치과 진료와 시술 등 자원 봉사를 펼친다.

문선영 기자 moon@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과 임종룡(오른쪽)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호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개소식에서 운영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조원호 기자 hyunho@

"카톡 선물하기·카카오톡 결제시 10% 적립"

카카오페이·롯데카드 '카픽 카드' 출시

카카오페이는 롯데카드와 손잡고 카카오 서비스에 특화된 혜택을 담은 '롯데카드 카픽(KaPick)'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카픽 카드는 카카오페이가 '픽(Pick)'한 카드

라는 뜻으로, 카카오페이 '카드 만들기' 서비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상품이다. 롯데카드 카픽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시 10%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한도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2만 원을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생활·요식·교통 영역 이용 시에도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결제 금액의 최대 1.5%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된다. 전월 카드 이용 금액이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일 경우 1.0%가 적립되고, 8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 시 1.2%, 120만 원 이상 시 1.5%를 쌓을 수 있다.

생활·요식·교통 영역에서의 적립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및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시 받은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5만 원의 통합한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최고 年10% 금리 'KB스타퀴즈왕 적금'

KB국민은행이 금융과 교육을 결합한 신상품 'KB스타퀴즈왕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스타퀴즈왕적금은 지난 5월 '리브넥스트'에서 오픈한 교육 특화 콘텐츠 '한국사 매일 퀴즈'와 연계한 단기 적금 상품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퀴즈를 풀면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가입대상은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월 1000원부터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00일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2.0%로 최고 연 8.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매주 1회 한국사 매일 퀴즈 참여 시 최고 연 3.0%p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승급전에서 정



품 이상 달성 시 최고 연 1.5%p 등 최고 연 4.5%p의 퀴즈왕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최고 연 1.5%p의 친구 추천 우대이율과 함께 웰컴스타뱅킹 우대이율로 적금 가입 전전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KB스타뱅킹 로그인 이력이 없는 경우 연 2.0%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고대역폭메모리〉

“임원들도 사재기 중”... HBM 받쳐주면 ‘10만전자’ 거뜬

“2분기 잠정실적 어닝서프라이즈!”, “2분기 영업이익 1128%라는데, 무조건 존버(최대한 버티기)”, “2분기 실적이 좋은가 보군, 임원들이 7만5000원 근처에 사는 걸 보니.”

삼성전자 폭락토론폰이 2분기 실적 발표일(5일)을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일 주가는 8만1800원에 마감, ‘8만 전자’ (주가 8만 원대) 굳히기에 들어갔다. 9거래일 연속으로 ‘8만 전자’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목표주가는 평균 10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효자’ 반도체, 영업이익 절반 차지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73조7160억원, 8조2288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규모고, 영업이익은 1130.9%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10조9000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2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DS부문)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호적인 환율 속 고용량 메모리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기반 판가 상승, 재고평가손실충당금환입,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으로 약 4조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호적인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수익률 개선에 힘을 보탤다. 시장 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2.1달러로 1월(1.80달러) 대비 10%가량 상승했다. 업계는 D램 평균 판매가격이 3분기에도 8~1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바일경험(MX부문)은 2분기 신제품 출시 공백기에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되나, 부품 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주가 전망

어닝서프라이즈 점치며 사재행렬 9거래일 상승 ‘8만원대 굳히기’ 증권가 목표주가 “10만4000원” HBM 경쟁력 회복엔 추가 상승

가 상승, 마케팅비 및 개발비 증가로 2조 원대 초반의 수익이 예상된다. 디스플레이(SDC)는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북미 및 국내 고객사향 중소형 디스플레이 출하로 전분기 대비 95% 증가한 영업이익 7000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 패널 가격 상승으로 영상디스플레이(VD)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되나, 에어컨 성수기 도래로 생활가전(DA)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며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 전자 3분기 매출액은 81조8128억 원, 영업이익은 11조7535억 원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각각 309조9344억 원, 39조218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19.7%, 497% 증가한 규모다.

◇증권가 “10만4000원 간다”...관건은 ‘HBM’ =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에 증권가도 환호하고 있다.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10만4640원으로 1분기 말 목표주가(9만5833원)보다 9.2% 상승했다. 키움증권은 “3분기에는 실적 호조 속에서 128GB 서버 메모리 모듈(DIMM)과 9세대 퀴드레벨셀(QLC) 기반의 eSSD 판매 확대, 엔비디아향 HBM3e 양산 승인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주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12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HBM 위기감 등은 삼성전자의 주가 추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주가의 최근 상대적 부진은 HBM 부문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HBM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9만5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소폭 하향조정했다.

류호정·문소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HBM 진입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도 “하반기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경우 탄력적인 추가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6월 반도체 수출액이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0.23% 오른 2804.31을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차전지·화학〉 〈반도체·바이오〉

이·화 팔고 반·바 샀다...시총 톱30 ‘수익률 양극화’

2분기 상장사 성적표 ①

시총 상위 30종목 수익 4.06% 플러스 종목 평균 21.65% 상승 마이너스 종목은 13.54% 하락 실적·성장성 따라 빈익빈부익부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사이에서도 주가수익률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2800’을 이끈 종목들은 반도체와 바이오주가 주를 이룬다. 반면 이차전지와 화학 등 업황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주가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의 2분기(3~6월) 평균 수익률은 4.0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86%)을 웃돌았지만, 종목별로 보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30종목 중 절반은 플러스, 나머지 절반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냈다.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종목들은 이 기간 평균 21.65% 올랐지만,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종목은 평균 13.54% 하락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바이오주 알테오젠(42.10%)이

올해 2분기 시총 상위 30종목 수익률 (단위 : %)

※출처 : 한국거래소

수익률 상위 TOP5		수익률 하위 TOP5	
알테오젠	42.10	-17.34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31.95	-21.30	LG화학
SK하이닉스	29.23	-24.30	카카오
한미반도체	28.87	-24.84	삼성SDI
삼성화재	27.12	-33.21	에코프로비엠

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이차전지주 에코프로비엠(-33.21%)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 2분기 29.23% 올랐다. 이 영향으로 한미반도체도 28.87%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 장비인 TC 분더를 납품 중이다.

주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키움증권은 카카오(-24.30%)의 목표주가를 18.84%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부진한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금융정보업

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SDI(-24.84%)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8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48% 줄어든 전망이다. 2분기 주가가 21% 넘게 떨어진 LG화학도 472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5% 감소할 전망이다.

시장별로는 덩치큰 대기업이 몰려있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을 앞섰다.

2분기 코스피 대형주(0.97%), 코스피 중형주(8.20%), 코스피 소형주(3.17%) 지수 등은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닥 대형주(-10.66%), 코스닥 중형주(-0.83%), 코스닥 소형주(-5.11%) 등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주주 환원” 현대글로벌비스 투심 몰리며 52주 신고가

3개년 신규 배당정책 적용 발표

현대글로벌비스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1일 현대글로벌비스는 전 거래일보다 9.82% 오른 24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24만8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달 28일 창사 이래 첫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3개년간 신규 배당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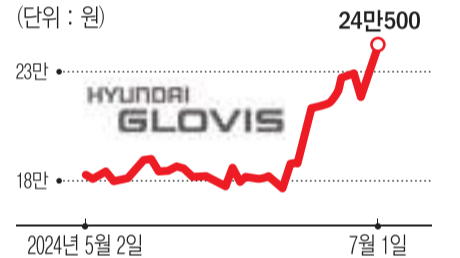
기존 ‘전년도 주당배당금(DPS)의 5~50%상향’에서 ‘전년대비 배당금 최소 5%상향 및 배당성향 최소 25% 이상’으로 변경한다.

배당성향 최소치인 25%를 가정해도 2027년 주당배당금은 작년(6300원) 대비 10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3750만 주에서 7500만 주로 무상증자도 단행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성향

현대글로벌비스 주가



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순이익이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라며 “급격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으로 연말 주요 고객과의 장기 운송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 매출액 전망치는 수정 전 27조9380억 원에서 수정 후 28조3240억 원으로 상향했고, 영업이익은 수정 전 1조7460억 원에서 수정 후 2조60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최고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비스가 드디어 주주친화적 행보를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PCC 계열물량 재계약을 앞두고 있고 올해 배당성향 역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koku@

하이투자증권, 실·부점 통합 등 조직개편 단행

하이투자증권(사진)은 기존 실·부점을 통합하고 팀 편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조직이 통합됐다. 기능별로 확장, 세분화한 조직 운영 단계를 단순한 형태로 변경했다.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실과 미래혁신부를 전략기획부로 합치고 경영관리부와 자금부는 재무부로 통합했다. 경영문화실은 기업문화부로 개편하고 산하에 홍보팀을 배치했다. 리테일총괄 영업지원실은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신사업

추진팀을 신설, 대출 중개 등 시너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솔루션부와 디지털컨택트센터를 디지털정보마케팅부로 통합, 산하에 플랫폼기획팀을 배치해 디지털 기획·컨텐츠를 강화하고자 했다.

영업접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내 영업점은 폐지했다. 강북WM센터는 서울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운용 부문 조직도 개편했다. 트레이딩총괄과 주식운용부를 폐지하고, 산하에 있던 PI운용부는 경영전략본부직속으로 배치했



다. 파생운용부는 전략사업팀으로 변경해 전략기획부에 편제했다. 장외파생팀은 홀세일본부의 패시브솔루션실에 배치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구조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삼성증권, 2024년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식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우수 SFC(Samsung Financial Consultant)를 초청해 2024년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SFC는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고객 유치와 자산관리를 하는 금융 전문 인력이다. 해당 제도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의 최근 2년간 실적 등을 고려해 5개의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이 중 상위 1% 이내 투자권유대행인 ‘블랙(BLACK) SFC’에는 이태우 위원을 비롯해 박경태 위원, 김남태 위원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골드(GOLD) SFC’ 8명과 ‘실버(SILVER) SFC’ 45명, ‘브론즈(BRONZE) SFC’ 200명과 그 외 화이트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우수 SFC를 초청해 ‘2024년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식’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삼성증권

(WHITE) SFC’ 등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등급에 따라 고급 건강검진권, 호텔 뷔페 이용권, 승격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윤혜원 기자 hwyoon@

건설채에 냉랭한 시장... DL이앤씨는 비껴갈 수 있을까

1000억 발행... 오늘 수요예측 앞서 GS·디앤아이한라 미매각 신용등급 높고 현금창출력 우수 목표 못 채우더라도 남은 물량 리테일 시장서 소화 가능 예측

DL이앤씨가 3년 만에 회사채 시장에 복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GS건설과 HL디앤아이한라가 미매각을 피하지 못하는 등 건설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한 상황이지만, DL이앤씨는 신용등급이 높은 데다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돼 이들보다는 괜찮은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큰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2일 총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공모채 발행은 2021

년 이후 처음이다. 증권업계에선 DL이앤씨의 현금 창출력이 높고, 'AA-(안정적)' 신용등급의 우량채란 점에서 대규모 미매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DL이앤씨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2.3%, 순차입금의존도는 (-)12.1%로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중단기적으로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 대신 증권은 DL이앤씨의 2분기 별도기준 주택부문 매출총이익을 65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분기 평균(665억 원)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또 별도기준 주택부문에서 최근 3년 동안 착공물량 감소에 따른 둔화세가 유지된 반면 플랜트부문은 국내외 대형 현장들의 공사가 진행될 데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다만 조달시장 자체가 건설사들에 긍정

건설사	신용등급	수요예측일	발행액	주문액
DL이앤씨	AA-	7월 예정	1000억원	-
GS건설	A	6월	1000억원	280억원
HL디앤아이한라	BBB+	6월	600억원	560억원

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 견해도 있다. DL이앤씨는 올 초 잡았던 회사채 발행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속된 업황 악화와 PF 우발채무 리스크로 기관 투자자들의 건설채 투심이 얼어붙자 발행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수요예측에 나선 GS건설과 HL디앤아이한라는 미매각을 피하지 못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1년 물량 600억 원 모집에 560억 원의 매수 주문만 받았다. 앞서 올해 2월 7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됐지만, 8.5%의 금리 상단을 제시하고도 '완판'하지 못했던 점에선 아쉬운 결과다.

GS건설은 신용등급 A급 우량채임에도 총 1000억 원 모집에 2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GS건설은 투심을 잡기 위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표채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더해 금리상단을 민평금리 대비 +100bp(1bp=0.01%포인트)로 높게 제시했음에도 미매각됐다.

증권업계에선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GS건설의 신용등급이 'A+'에서 'A' 강등되는 등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점이 미매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GS건설은 이번 수요예측 당시 5.638~5.712% 수준의 금리를 제시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많아 미매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일 금리를 6.5%~7% 수준으로 책정했다면 기관이 상당 부분 가져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이번 수요예측에서 미매각 되더라도 리테일 시장에서 남은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DL이앤씨의 수요예측 결과와 별개로 건설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연내 반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DL이앤씨 정도의 우량채라면 미매각되더라도 리테일 시장에서 고금리 채권 매수에 적극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회사의 흥행과 무관하게 건설채에 대한 시장의 낮은 관심과 수요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실적 턱어라운드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수요가 강하게 살아날 것이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1년 내 집 살 의사 있다” 65%... “매도”는 42%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1일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앱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9%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p 상승한 수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42.1%였다. 지난 11월에 조사한 결과보다 1.7%포인트(p) 감소했다.

거주지역별로 1년 안에 집을 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지방'이 69.5%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69.0%), '경기'(64.7%), '인천

직방, 앱 사용자 대상 조사

매수계획, 작년말보다 0.6%p ↑ 전·월세→내집마련 44.7% 최다 거주지 이동, 면적 확대·축소 순

'(63.6%), '서울'(60.8%)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9%)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0%)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1.1%) 순이다. 전반적으로 실수요 매입의향이 많은 가운데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의향이 2023년 11월 조사와 비교해 2.4%p 늘어났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

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2.0%) △거주, 보유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21.4%) △대출 금리 인상 부담이 커서(10.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매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광역시가 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43.0%), 경기(42.1%), 인천(42.0%), 서울(36.1%) 순으로 수도권보다 지방권역에서 매도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도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19.5%)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3.5%)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11.8%) 등 순이다. 허지은 기자 hje@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

4946건... 1월의 2배 육박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50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6월 거래량도 이미 3200건을 넘어섰다.

1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4946건이다.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2612건으로 출발해 2월 2572건, 3월 4241건을 기록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4월에도 4390건으로 마무리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인 6월 거래량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일 기준 6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208건이다. 신고기한이 7월까지 한 달가량 남았지만 이미 5월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

다.

지난해와 202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에 근접하지 못했다. 2022년 10월에는 576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3년 1월에도 1400건대, 2~3월은 2000건대에 불과했다. 2023년 중 가장 매매거래가 많았던 8월에도 4036건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석 달 연속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6월~8월 이후 처음이다. 2021년 거래량은 6월 4053건, 7월 4796건, 8월 4024건을 기록한 뒤 9월 2801건으로 급감했다. 2023년 들어 8월과 6월(4011건)을 제외하고는 4000건 이하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관망하던 심리가 매수세로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허지은 기자 hje@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롯데컨소시엄,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마쳐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K-UAM GC-1)'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전라남도 고흥항공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약 4주간 대역기(헬기)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버티포트 관리, 운항지원 등의 역할을 완수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렌탈과 함께 롯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실증 사업에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 항공기/운항자는 켈코에비에이션이, 교통관리는 롯데이노베이트가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롯데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K-UAM GC-1단계'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행했다. 버티포트는 롯데렌탈이 주관하고 롯데건설, 롯데이노베이트가 참여했으며, 버티포트 관제시스템은 유니텍이, 관제사로는 위우너스가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등과 함께 올해 4월 '2024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 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돼 2026년까지 울산시에 모듈형 버티포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12대 국가전략 기술 사업 중 하나로 롯데이노베이트 및 롯데렌탈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그룹의 UAM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상업·업무용 빌딩은 약세... 거래량·금액 20% '뚝'

전국은 각각 5%·10.7% ↓

올해 5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달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20% 이상 줄었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5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226건으로 전월(1291건) 대비 5%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전월(2조6268억 원)에 비해 10.7% 줄어든 2조3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같은 달(1124건, 2조471억 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9.1%, 14.6% 증가했다.

5월 거래된 빌딩 중 단일 거래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300억 원 이상 거래도 5건으로 전월(1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 강남

구 삼성동 소재 '위워크타워'가 1470억 원 거래되면서 5월 최고 거래금액을 기록했고, 서초구 반포동의 '이니셜타워 I'(708억 원), 강남구 삼성동 '코베가든'(436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충북(45건, 36.6% ↓), 대구(33건, 29.8% ↓), 제주(16건, 27.3% ↓) 등의 순으로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은 140건으로 전월 대비 20% 줄었고, 거래금액은 1조777억 원으로 22.2% 감소했다. 거래금액으로는 제주(-28.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반면 세종(4건, 100% ↑), 대전(49건, 81.5% ↑), 울산(29건, 52.6% ↑), 전남(90건, 26.8% ↑), 강원(75건, 17.2% ↑) 등 5개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리 기자 truth@

오세훈 “생활 속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서울 만들겠다”

시장 취임 2주년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도시 서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저출생, 기후변화, 소득·교육·지역 격차 등 서울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슈 중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가 시민과의 협업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시장이 ‘일상혁명’을 강조한 이유다.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오시장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가치 있다”며 “앞으로 2년간 더 놀라운 일상 변화를 통해 불평등 해소, 온실가스 감축, 복지 표준 정립 등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시장은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심소득, 서울런, 동행버스,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자율주행버스, 넥스트로컬,

손목닥터 등 정책 성과 뿌듯 저출생·기후변화 대응 선도 재개발 지연은 아쉬움 토로

주거안심장기전세주택 등 ‘오세훈표’ 동행·매력 정책들을 언급하며 “일상의 혁명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상혁명’의 최전선에서 부단히 애쓰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동석해 그동안 느낀 고충과 보람을 전했다. 이은결 스마트건강과 주무관은 “처음 ‘손목닥터9988’을 담당하게 됐을 때 가능할지 의문이었지만 올해 목표였던 가입자 100만 명을 상반기에 달성했다”며 “시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분들께서 세금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고 은둔고립청년들이 용기가 생겼다고 했을 때 보람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오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서울시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앙정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돌봄비, 난임부부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 서울 시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사업들을 계속 쟁겨나갈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가 연간 330만 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를 낸 것처럼 진심이 담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나 대한민국의 존폐를 가르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배는 분들이 세금만 내고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궤변”이라며 “세금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 주택 공급 관련 재개발·재건축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해 왔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 갈등관리 관련 지적에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정부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라고 준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서울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국가 기후위기 대응위해 선도적 역할”

장동연 16대 기상청장 취임

장동연(사진) 신임 기상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6대 기상청장인 장 청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시대, 극한기상이 빈발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여된 책임의 엄중함을 느낀다”라며 “기상청이 과거 성과에만 안주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청장은 “기상청의 제일의 가치는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를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은 물론이고, 동시에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정보는 국민의 삶과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정보”라며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국가 전체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감시역량 강화 그리고 예측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우리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조직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만큼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기술 조직에 걸맞은 투자와 인력양성, 미래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더위 핑계로 늘어저도 괜찮아

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공새김판이 여름편 문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공새김판 문인 공모전 당선자 이기운 씨는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저도 괜찮은 날, 여름’을 소개하며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공새김판을 보고 조금은 쉬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공새김판이 여름편 문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공새김판 문인 공모전 당선자 이기운 씨는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저도 괜찮은 날, 여름’을 소개하며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공새김판을 보고 조금은 쉬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재 “‘미성년자 간음’ 의제강간죄 적용은 합헌”

(16세 미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 “피해자 성적 결정권 행사 불가능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해야”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1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간음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다만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평등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익경 기자 ekpark@

6월 모평,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영어, 1등급 비율 역대 최고치 기록 수학도 표준점수 ↑ ... 국어는 쉬워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수험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 1등급 비율은 1.47%로 절대평가 이후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국어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반수생 등 ‘n수생’ 증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변별력을 의식해 출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가원은 1일 이 같은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모평 전영역 만점자 수는 6명”이라고 밝혔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8점, 수학 152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는

2점 낮아졌고, 수학은 2점 높아졌다.

특히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은 1.47%로 절대평가 이후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간 제일 낮았던 것은 2023년 3월에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로 1.98%였다.

수험생들은 길러문항이 없었음에도 중난도 문항에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가원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반수생 증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변별력을 너무 의식하고 출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모평은 출제경향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도 등 올해 응시 집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6월 모의평가 때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했으니 9월 모의평가 때는 충분히 난이도 조절을 해서 시험을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의 행복 커져라 똑딱!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KB증권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모델 이찬혁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 KB증권

제네바 기업가정신포럼 '윤리경영대상' 초대 수상자 선정 신창재 "적극적 윤리경영이 더 크게 성공하는 길"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모든 이해관계자 함께 발전 사회정의 추구 기업가” 평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윤리경영과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일 교보생명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세계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개최한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이 제정했다.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 ILO가 새로운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의 추구를 글로벌 기업가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국의 후보 추천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신 의장이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27일 포럼장에서 심사위원장을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대상'을 받은 뒤 영상을 통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말은 원술로 사전트 전 ICSB 의장은 "신 의장은 지난 24년 간 글로벌 수준의 윤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보험설계사, 직원, 주주,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사회정의 추구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장은 생명 탄생을 돕는 의대 교수

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2000년 교보생명은 적잖은 자산손실 등 외환위기 후유증과 잘못된 영업관행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취임 직후 생존을 위한 변화혁신의 출발점으로 정도영업과 윤리경영을 내세우며 '교보인의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2004년에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가속

화하기 위해 '교보인의 직무윤리 실천규범'을, 2006년엔 민간기업 최초로 '직무정령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신 의장 일가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8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세상에 거저와 비밀은 없다"는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신조는 아들 신 의장이 이끄는 교보생명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성실'로 계승돼 오늘날 윤리경영 기업 문화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신 의장은 ILO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영상 소감을 통해 "2000년 대표이사 취임 당시부터 잘못된 영업관행을 개선하며 고객 중심의 정도영업을 추진하다 보니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경영에도 점점 눈뜨게 됐고,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도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도 윤리경영의 끝없는 여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윤리경영을 펼치는 것이 기업이 더 크게 성공하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dove@

한국고등교육재단 김유석 대표 취임

한국고등교육재단 신임대표로 김유석(사진) 최종현학술원대표 이사가 1일 취임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전 대표가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예일대에서 MBA를 마친 김 대표는 맥킨지 경영 컨설턴트 및 글로벌 에너지 회사인 BP그룹에서 임원 등을 역임한 후 SK가스, SK차이나 기획실장, SK에너지 글로벌 사업개발실장 및 전략본부장, SK온 마케팅본부장 및 경영기획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H,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 제6대 원장에 정창무(사진)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및 동 대학원에서 건축학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허지은 기자 hje@

“관리자 너무 작은 일에 참견, 노동자와의 신뢰 깨뜨려”

“가짜 노동이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이다.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는다.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전화로 끝내야 한다. 무의미한 미팅이나 긴 보고서 작업 등이 가짜 노동이다.”

책 '가짜 노동', '진짜 노동' 등을 출간하며 노동의 본질을 파헤친 덴마크 출신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사진)가 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제66회 서울국제도서전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이날 “한국 독자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가짜 노동 문제가 많다는

‘가짜 노동’ ‘진짜 노동’ 저자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 “부동산·주식 등으로 돈 버는 불로소득보다 노동 중요시돼야”

얘기로 들려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현재 노동자들의 주축인 청년들은 이런 가짜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생산성과 노동 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르마르크는 한국 노동 문제의 본질을 ‘관리자와 노동자 사이의 신뢰 문제’로 봤다. 그는 “한국은 상사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논쟁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덴마크는 상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신뢰 관계가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 뇌르마르크는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 세세하게 지적하면 직원들은 상사가 날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리자는 ‘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널 고용했다’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충분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그런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부동산·주식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 즉 불로소득에 대한 불신 혹은 반감이 있다. 이에 대해 뇌르마르크는 “나도 불로소득보다는 실제 노동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사진 뉴시스

인사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심사관리관 남우정
- ◆기획재정부 ◇과장급 △국제투자협력단장 최지영
- ◆교육부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지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장 이관표 △국립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최원석 △국립소통실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이성은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야주통상과장 이정주
-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국장급 전보 △도로국장 이우재
- ◆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노중현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김행관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한선경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윤의순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운수 △ △ 축산자원개발부이전 추진팀장 이경희
-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기완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조성익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이종규 △국립중앙도서관장 황순주 △공공발전위원회장 정대희 △공공발전위원회장 이진국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스마트팜융합

- 연구센터장 김상민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김승민 △수소에너지소재연구단장 윤경중 △정전에너지연구센터장 오형석 △차세대태양전지연구센터장 이필립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정훈기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장 손정근 △기후대기정책팀장 이영혜 ◇전보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 정경윤 △반도체기술연구단장 이수연 △양자기술연구단장 한상욱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최홍상 △강릉분원 혁신기업협력센터장 강대신 △휴머노이드연구단장 이종원 △AI·로봇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이삼규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 장중현 △정정수소융합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윤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행정본부 행정본부장 이진호 △ 운영관리부장 임상균 △ 보안관리실장 윤환식 △호남권연구본부 연구지원실장 박호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사회보장정책데이터연구실 지역사회보장정책발전지원센터 합영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 가스정책연구실장 노남진 △에너지국제협력센터 에너지국제기구협력실장 유학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승진 △송태균 △김윤성 △이철형 ◇수석연구위원 승진 △신유원 △이슬기 △권오연 △곽수진 ◇책임연구위원 승진 △ 정영혜 △신윤현 △김나형 △임보경 △조종선 △박정원 △정태영 △하지봉 △이상현 ◇책임관리원 승진 △이미란 △이혜영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급 승진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팀장 정준혁 △산업혁신실 부실장

- 김태우
-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구경분(전보) △방송영상본부 박인남(신임)
- ◆중소기업유통센터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허성만 ◇2급 승진 △감사팀장 이승국 ◇부서장 전보 △성과관리팀 TF 단장 김수정 △기획조정실 실장 허성만 △마케팅지원실 실장 강계현 △기업성장지원실 실장 이종훈 △소상공인혁신실 실장 엄동기 △직접생산지원실 실장 한상민
-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 △Tech 혁신단장 이국희 ◇본부장 재선임 △ESG 본부장 조정훈
- ◆교보증권 ◇부서장 신임 △파생영업부 김성현
-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기업금융3실장 서한서 △Syndication실장 최승용 △PI실장 김학준 △프로젝트금융4실장 김진성 △IB솔루션3실장 지태승 △디지털플랫폼실장 이정근 △부동산금융1실장 김세종 ◇부서장 전보 △PI솔루션실장 임현목
- ◆IBK투자증권 ◇임원 승진 및 신규 선임 ◇부문장 △경영전략부문장 전무 문찬걸 △리서치부문장 전무 용대인 ◇본부장 △DT부문 디지털혁신본부장 상무 정병운 △경영전략부문 경영전략본부장 상무대우 이승택 △상무대우 △SME Solution부문 IPO본부장 전기환
- ◆하이투자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준법감시본부장 김상우 ◇단장 신규 선임 △고객자산운용단장 이상환 ◇실장 신규 선임 △경영지원실장 송정웅 ◇부서장 신규 선임 △신탁부장 고상현 ◇센터장·실장 이동 △서울금융센터장 이봉석 △영업기획실장 손창우

- ◆한양증권 △신임 ◇센터장 △ST센터장 신인식(상무) ◇부서장 △CM부장 성계원(이사) △BST부장 김혜화(부장) △EST부장 이정석(부장) △북합금융부장 송영근(차장)
- ◆EY한영 △품질관리실장 △양준권(본부장) △세무부문 △국세조세 및 M&A 세무자문본부 정인식(리더) ◇감사부문 △오피레이션 이우창 ◇전략·재무자문부문 △M&A 솔루션 그룹(공동) 김태민 이상범(전무) ◇감사부문 △강선구 △김민석 △박근영 △박수민 △순동훈 △정대형 △전략·재무자문부문 △이윤관 △황인회 △금융사업부문 △안덕수 △이종선 △이정선 △황성연 △EY컨설팅 △이석재 △이찬영 △이창호 △이창현
- ◆신동아건설 (상무보 승진) △건축/기전/CS 박광현 △기획/HR 신경훈 △안전보건 윤태경 △건축영업 최경식 △춘천근화 APT현장 김병국
- ◆일동제약그룹 ◇일동윙스 △기획조정실장 상무이사 이승현 △준법경영실장 상무이사 신아정 ◇일동제약 △생산본부장 전무이사 이석준 △청주공장 상무이사 이정환 △OTC본부장 상무이사 김석태 △Cx본부장 상무이사 강대석 △ETC1본부장 이사대우 오장훈 △ETC3본부장 이사대우 권대호 △ICT개발실장 이사대우 박우석
- ◆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상무이사 윤인상 ◇휴온스글로벌 △이사 이재권 △이사 김창준
- ◆제뉴원사이언스 ◇상무 승진 및 신규 보임 △ 품질본부장 박병문
- ◆노랑풍선 ◇임원 선임 △최고고객책임자(CCO) 구예원

현대오토에버, 최원혁 CISO 영입



현대오토에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 최원혁(왼쪽 사진부터) 상무와 쏘카 지두현 상무를 영입해 각각 보안총괄임원(CISO)과 SW개발센터장에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심민정 법무실장은 상무로 승진하며 현대오토에버 최초의 여성 임원 자리에 올랐다. CISO에 선임된 최 상무는 22년 동안 정보·데이터 보호 분야에 종사한 보안 전문가다. SW개발센터장에 임명된 지 상무는 네이버,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쏘카 등 IT 기업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며 개발팀장과 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한화로보틱스 대표에 정병찬 CTO

한화로보틱스는 새 대표이사로 정병찬(사진) 최고기술관리자(CTO)를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기계공학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화 기계 부문과 모멘텀 부문 로봇기술 팀장을 거쳐 한화로보틱스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GE헬스케어코리아, 김용덕 대표

GE헬스케어코리아는 김용덕(사진)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 졸업 후 1996년 입사해, 약 30년간 GE에서 근무했다. 이삼민 기자 imfactor@



오정근 칼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통상 은행은 상환 능력 등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낮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우려가 대기업 대출의 부실우려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올 4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6%로 대기업 대출의 6배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61%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 불황의 영향을 대기업보다 크게 받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경기 불황에서는 연체율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도 낮고 연체우려도 크니 당연히 대출 증가 폭이 적은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정책들이 금융의 논리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역전 현상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배정받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해 온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들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책 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한된 자금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경제전체의 생산성

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

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다. 대출잔액은 14조 5921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조 2757억 원(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 9000명에서 84만 8000명으로 14만 1000명(14.3%) 줄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나 저신용자 금융소외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 중·소기업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기업사들도 유사한 '이자반환'을 실시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2023년에 21조 3000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ROE(자기자본이익률)는 7.9%에 불과했다. 2013~2022년 평균으로는 한국 은행들의 ROE는 5.2%로 미국의 10.2%, 싱가포르의 10.8%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업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1년 전(100조 4311억 원)보다 약 32%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31조 2686억 원으로 지난해(494조 6378억 원)보다 7%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올 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넘어선 후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 4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4.81%로 대기업 대출금리(4.97%)보다 0.16%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성장경험 세계와 나눌 때

한국의 중견가구제조업체 포머스 강준기 회장이 이야기다. 1989년 대구에 본사를 두고 사무기구회사로 출발하여 전국적인 생산 유통망에 친환경 스마트가구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강 회장은 동남아 라오스에서 사업 2막을 찾은 듯하다.

몇 년 전 우연히 친구 따라 찾은 라오스에서 우물을 파주면서 현지 라오스인이 좋아하는 모습에 유년기 때인 7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국의 농촌을 우물 파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라오스에서 다시 한번 보는 듯했을 것이다.

한국만이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스토리

강 회장의 라오스 봉사는 학교와 교육분야로 펼쳐졌다. 봉사활동이 좋아서 학교를 고쳐주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다 보니 라오스에 포머스 현지 소문도 마려되었다. 한국에서 연구개발한 불연소재를 가지고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에 건축 기자재 수출도 꾀하게 되었다. 강 회장의 포머스는 이제 동남아 진출 전략을 짜게 되었고 나아가 제2의 라오스를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서 찾을지 모른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말처럼 그리 녹록지 않다. 말도 안 통하고 현지 사정도 어두운 데다 불편하고 귀찮은 절차나 관행 등에 부딪히다 보면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자리 잡은 과정을 겪으면서 굳이 우리보다 더 힘든 개도국 기업 환경에 나서고 싶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고 수월해진 해외여행처럼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마치 강 회장이 친구 따라 라오스에 갔듯이.

우리가 해외여행처럼 생각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어렵게만 볼 게 아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현지 비즈니스 문화와 관행 등은 AI 시대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 회장의 오늘을 있게 한 '포머스' 정신, 포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스스로 잘하는 한국 기업이 정신의 DNA가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고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로 통하는 세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는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에 울고 웃는

시론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한국문화에 익숙한 글로벌 소비자들 모두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는 시장이며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적인 음악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접속되듯이 한국의 기업이 정신과 비즈니스 성공 경험을 개도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가 되었다.

자기세대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강 회장의 기업 스토리나 기업가 정신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의 모습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함께 공유할 경험 가치인지 모른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새로운 신흥시장벨트로 거듭나는 글로벌 성장축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이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중소기업화로

강 회장이 라오스에서 시작한 우물파기, 학교 수리 등은 현지인의 마음을 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가의 ESG 상생경영 정신을 보여준다. 우리가 축적한 기업 경험, 산업 육성의 스토리를 담은 해외 글로벌 진출이야말로 일본의 동남아 진출이나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콘텐츠와 스토리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강 회장 같은 멋진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이제는 동남아로, 중남미로 더 나아가 아프리카 등으로 한국의 기업이 정신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지인의 마음을 사고 새롭게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도모하는 사업의 2막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강 회장이 35년 가까이 키워온 포머스처럼 '포'기 하지 말고 '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비즈니스 기회를 도모하는 한국 기업가 정신을 이제는 세계로 펼쳐나갈 때이다. 앞으로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동남아에서 중남미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등에서 멋진 한국인의 DNA로 발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치권發 '금투세 불확실성'

노트북 너머

윤혜원
자본시장부 기자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서민·중산층 사이에서 자본소득은 자산형성의 대표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근로에 투입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몸은 하나뿐이기에 근로 외에 '돈이나 올 구멍'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탈출구다.

'벼락거지' 위기감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둔 정치권 줄다리기로 또 다른 난항에 맞닥뜨렸다.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여러모로 개인에게 부담이다. 5000만 원 이하 투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피하고자 보유자산 처분 여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미래 소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작업이다. 금투세는 2022년 말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 불확실성에 질린 개인은 국내를 등지고 해외 증시로 향하는 중이다.

문제는 개인 이탈이 국내 증시 침체를 가속화해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 등 콘손들 투자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대상 투자

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증시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냉각을 부를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기업이 투자를 원활히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이런 사정에도 세수확보를 위해 금투세를 꼭 시행해야겠다는,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계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 거둔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국회가 주춤하는 이 순간에도 증시에서 단숨에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hwoon@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아멜리아 에어하트 명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을 하라."

미국 비행사. 여성 비행사로써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고,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태평양 상공을 쉬지 않고 날아 '하늘의 퍼스트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적도 주변을 도는 긴 항로를 이용한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했다가 실종되었다. 오늘은 그녀가 숨을 거둔 날. 1897~1937.

☆ 고사성어 /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는 말. 불행한 일이나 난처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비유할 때 쓴다. 후한(後漢)의 제4대 황제인 화제(和帝)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두태

후(竇太后)가 수렴청정하자 태후의 오빠 두현(竇憲)이 정권을 장악했다. 화제가 환관 정중(鄭眾)을 통해 두씨 일족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곧 환관의 횡포가 시작되었다. 당시 상황을 원(元)나라 때 조설항(趙主航)이 지은 평사(評史)에 이렇게 평했다. "두씨가 제거되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환관의 권세가 성하게 되었다. 속담에 이르길, '앞문의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前門拒虎後門進狼]' 하니 이것을 이른다."

☆ 시사상식 / 가격 약속(Price Agreement)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수출자가 과세당국과 가격 인상 또는 수출증지를 약속하는 제도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자유무역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과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협상과 합의로 이루어진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得보다 失이 큰 주6일제 확산

대기업 임원은 통상 '별'로 지칭한다. 군에서 장군으로 승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얘기다. 그만큼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낮다. 국내 100대 기업에 재직하는 일반 직원이 임원 명함을 새길 확률은 0.8%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 중 임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도 0.9%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직원 수는 대략 85만 명. 이 중 미등기 임원만 7000명이 조금 넘는다. 산술적으로 120명 정도에 임원이 1명 있는 셈이다. 달리 해석하면 직원 120명 정도가 치열하게 경쟁해 1명 정도만 겨우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입사를 위한 경쟁부터 고려하면 임원까지는 산 넘어 산이고, 실력은 물론 운도 따라줘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대우도 일반 직원과는 천양지차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임원들은 회사와 새로운 연봉 계약서를 쓰게 된다. 개인별 편차가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부장→상무→부사장→사장까지 단계적으로 연봉이 2배가량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 어느 임원한테서 들었던 '입사 후 부장까지 받은 전체 연봉을 상무 3년, 상무 3년은 다시 전무 1년으로 같을 수 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직급의 승진 연차를 고려하면 대략 비슷하다.

임원은 연봉뿐 아니라 자동차, 사무실, 골프 회원권 등 각종 복리후생도 변화가 생긴다. 혜택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른다.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임시 직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임원은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임원 승진을 꺼리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통상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많이 퍼져 있던 문화다. 직책을 맡아보야 책임만 따르니, 그냥 조용히 정년 채우는 게 이익이라는 셈법이다.

데스크 서각

홍기범
부국장 겸 산업부장



이런 분위기가 기업들까지 확산한 것이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임원보다는 정년을 채우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임원 주 6일제' 분위기가 이런 움직임에 쐬기를 박는 것 같다.

삼성, SK에서 시작된 임원 주 6일 근무는 재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1일부터 HD현대오일뱅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할지 모른다.

임원 주6일제는 회사가 사실상 비상 경영을 선포한 것이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으로서

는 여러가지 이유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임원들을 통제함으로써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몸 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다. 그런데, 방향성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일류로 발돋움한, 초일류를 지향하는 우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치고는 웅색하다.

예전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기업 내 임원은 실무자가 아니다. 결정하는 자리다. 이런 임원들만 사무실로 불러낸다고 일이 진행될까? 오히려 임원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더 많은 구성원의 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만 꺾을 것 같다. '굳이 내 청춘을 갈아 넣어 임원이 되어 할까?'라는 생각만 키울지 걱정된다.

물론 기업에는 주 6일을 출근해도 임원이 되고 싶은 직원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중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얼마나 남아서 임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kbhong@

재계 사실상 비상경영·위기감 제고

초일류 지향하는 기업치곤 웅색해

구성원 의욕만 꺾지 않을지 걱정돼

마음상담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1800년대 초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습니다.

추운 겨울 가난한 구둣방 주인이 발가벗은 채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중인 천사였습니다. 구둣방 주인이 집에서 7년간 일하던 그 천사는 3가지 깨달음을 얻고 용서를 받는데요, 그 3가지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쓰기 전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였습니다. 또한 귀족가문의 막내 아들로써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앞에서 보니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며 신 앞에 선 단독자(單獨者)로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을 특히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을 한번쯤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 죽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기에 톨스토이가 자살 작전 쓴 책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책 속 인물의 말을 빌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사랑'이라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는 '미래'라고 답하지요.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아가 있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 무엇으로 사는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전안나 책글사람 대표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법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사례다. 같은 기간 6명에서 0.78명까지 8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역대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2006

년부터 2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OECD 최하위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적 파장만이 아니다. 교육 인프라 붕괴, 병력 부족에 따른 군사력 약화도 걱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돼 역할을 하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AI시대 진화하는 '대화형 UX'

과학세상

정연섭

한국원자력학회 사무총장



연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느끼고 아파트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 건축물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은 강력하지만 '경험(Experience)'이 '연계(Interface)'를 밀어 낼 줄은 몰랐다. 사용자가 조작하는 화면을 UI(User Interface)로 불렀지만 요즘은 UX(User Experience)로 부른다. UI는 객관적이고 공학적이지만 UX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다.

표준화된 HTML 도입으로 호환성 해결

대부분 UX는 HTML과 인터넷 브라우저로 구현된다. HTML은 화면을 기술하는 언어이다. 집의 설계도가 창문, 에어컨, 양변기, 수도꼭지, 싱크대를 지시하듯이 HTML도 문자, 그림, 그래픽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브라우저는 HTML로 쓰인 문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HTML은 정적인 문자나 정적인 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 설계도대로 건축된 집에서는 상수도관에서 연결된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만, 초기 HTML로 작성된 그래픽은 실시간으로 값이 갱신되지 않았다. 한계를 극복한 당시 앱이나 홈페이지는 인기를 독차지 했다.

당시 역량 있는 소수의 전문가가 긴 미로 작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했다. 소프트웨어 회사도 HTML의 한계를 극복하려 고유 기술을 넣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액티브X 기술인데 특정 브라우저에만 작동해 문제가 되었다. 외국 고객에게는 장애로 작용했던 우리나라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호환성 문제는 표준화된 HTML 도입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동적 기능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버전의 HTML이 계속 나와 2014년에는 HTML5까지 발표되었다.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HTML6로 개선된다는 소식이 없었다. 찾아보니 하나씩 증가시키는 갱신 전략을 버리고 지금 제시된 HTML 규정이 유효한 규정이

라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모호한 전략이지만 표면적으로 신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HTML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개선의 동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UX는 직관적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원리가 적용된다. 한 화면에 들어가는 항목의 수나 전화번호 자릿수가 약 7개인 이유도 인간의 인지능력을 고려해서다. 특정 어휘 옆에 팝업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는 인지심리에 근거한다. HTML로 개발된 최근 홈페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므로 HTML이 인지심리 적용 측면에서 보면 성숙단계라는 추측은 수긍이 간다.

시각적 UX에서 청각·촉각 UX 지원해야

그러나 홈페이지를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면 UX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에서 다중 작업에 유익한 UX를 질문하게 된다. 신형 자동차 핸들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전방 창과 모니터를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실 세계와 모니터 속 정보를 융합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HTML이 시각적 UX에서 벗어나 청각이나 촉각 UX를 지원해야 할 듯하다. 자율주행 차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운전자는 창밖을 보지 않는다. 자율주행 AI가 책임지고 운전하다가 위급상황에서만 운전원을 깨운다. 이때 운전원은 짧은 순간에 눈을 떠 주변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율주행 AI가 문제를 몇 개의 단어로 알려 주는 UX가 든든할 수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플레이를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AI로 모든 순간을 업스케일

Neo QLED | Neo QLED 8K | OLED



스포츠도 역시 삼성 AI TV



최신의 삼성 AI TV로 바꿀 역대급 보상찬스
삼성 AI TV로 바꿔보상 (24.7.1 ~ 8.31)

바꿔보상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보상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시청 경험은 콘텐츠 종류와 포맷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I 업스케일링은 PC로 연결하거나 게임 모드일 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